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인재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0-649193 (예금주: 동국대학교)
후원문의 : 02-2260-3300(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월 12일)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軍불자 관리 시스템 구축 청년포교까지 확장 나선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2월 15일 신년회견

종단과 협력해 관리 시스템 구축
군승 수급 문제 "재입대로 해결"
총무원장 스님 주관 수계법회도
"태고종 군승파견은 국방부 소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체계적 군불자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수계 장병 DB구축을 통해 군포교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청년 전법 활성화를 위해 군종병 관리도 적극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부 불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방침이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사진〉은 2월 15일 서울 용산 군종특별교구 원광사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핵심사업 계획을 밝혔다.

취임 2개월을 맞은 법원 스님은 이날 먼저 군포교 활성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군종교구는 최근 조계종 포교원,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하고 군포교를 통한 청년전법 활동에 본격 나선 상태다. 첫 단계는 수계 장병 DB를 구축으로, 이를 통해 청년 불자 관리 체계화를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법원 스님은 "수계법회를 통해 연간 10만 명의 수계자가 배출되고 있지만, DB구축 미비로 전법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군에서 불교 신행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 군 법당과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계 장병 DB구축은 조계종이 현재 진력하고 있는 청년대학생 전법 포교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불사이기도 하다. 법원 스님은 "5개 사관학교와 6개 교육부대만 해도 청년 불자들이 많은데 그간 체계적인 관리에 소홀했다"면서 "이와 함께 장성 불자와 간부 불자들 관리 시스템도 구축,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종교활동을 보조하는 병사인 군종병을 집중 케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군종병은 부대 안에서 군인들이 종교생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군종교구는 조계종 출가장려위원회와도 협력, 군종병 프로그램을 통해 진성불자를 발굴하고 출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군종병 120명에 대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는 5월 10~13일 성남 밀리토피아 등지에서 진행되며 연등행렬 동참과 함께 출가상담사와 MZ스님들과의 토크 콘서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법원 스님은 군승 수급 현안도 공개하는 세밀함을 보였다. 스님은 "군승 수급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나, 고령화저출산 등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군승 수급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군승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복무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으로 모색, 실질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군종교구는 전역 군종장교 재입대 권유, 연장 장기 복무자 선발 확대, 비구니스님 독려 등을 통해 군승 수급 문제를 적극 대처해 가고 있는 상태다.

최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군승장교 양성 파견 구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법원 스님은 "군승 파견을 위해서는 법규에 맞는 교육체계가 구비되고 기관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면서 "태고종이 군승 파견을 원한다면 국방부가 요구하는 체계 구비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계종은 군포교 중요성을 인식, 종단 차원의 지원 강화에 나선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28일 계룡대 홍제사에서 군승을 대상으로 강연 시간을 갖는다. 또 6월 1일에는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개최될 수계법회 법사로 직접 나설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500일을 기념해 조계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과 108배를 올리는 진우 스님. 취임 전부터 매일 108배 정진을 해온 스님의 일과는 변함이 없다.
사진=조계종 홍보국

조계사 사부대중과 함께 한 '취임 500일'

진우 스님, 2월 9일 대웅전서 108배 정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계사 사부대중과 총무원장 취임 500일을 기념했다.

진우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부·실·국장단은 2월 9일 오전 8시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500일을 맞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올렸다. 108배 정진은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외에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조계사 사부대중,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상월결사 인도순례 입재 1주년을 기념해 모인 대중이 함께했다.

약 15분간의 108배 정진 이후 스님과 불자들은 설 연휴 첫날을 맞아 진우 스님에게 세배를 올렸다. 이에 진우 스님은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과 신도회 임원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빨래·청소 등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 조계사 소임자들을 격려하며 세뱃돈과 저서 〈신심명 강설〉을 선물했다.

진우 스님은 취임 500일을 맞은 108배 정진에 사부대중이 함께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 뒤 "상월결사 인도순례 입재식이 오늘로 1주년이 된 날이기도 해 이 법석이 한층 뜻을 더한 것 같다"고 새해 덕담을 시작했다.

스님은 이어 총무원장 취임 전부터 매일 이어온 108배에 대해 "절집에 들어온 지 50년이 넘었는데 살다 보니까 타성에 젖을 때가 있어 삭발염의한 뜻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글을 쓰고 108배를 해왔다"며 "나 자신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행이자 동시에 모든 국민과 사회가 종단을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힘내자는 축원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궁극적으로 불교의 목적은 모두가 한 점의 괴로움도 없는 이고득락의 세계로 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자세가 필요하다. 높은 자살률과 저출산 등 난맥상이 표출되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종단이 선두에서 포교와 전법에 더욱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행 등 세간에서 점차 늘어나는 사회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제적 풍요로움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를 강조했다. 스님은 "대한민국이 세계 상위권의 경제 선진국에 들어섰다 해도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행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법해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부연했다.

스님은 또 현재 개발 중인 종단 차원의 선명상 프로그램을 강조하면서 "올해에 널리 보급해 남녀노소 누구나 명상을 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2022년 9월 28일 임기를 시작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 200일째엔 광주 자비신행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청년들과 소통을, 300일째엔 부산 쿠무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청년세대와 대화를 나눴다. 윤호섭 기자

참신하고 역량 있는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장을 찾습니다.

모집 지역
대구 · 경북 지역

활동영역
- 관할지역 내 광고영업
- 신문홍보 및 구독확장
- 본사 수익 사업 추진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명기),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기 한
  2024년 3월 31일
- 방 법
  이메일 또는 본사 방문 및 우편 접수

제 출 처
- 주 소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 문 의 (02)2004-8258

대행선연구원 불교 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 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제7회 묘공학술상 공모
공모분야 :
-한마음선원 및 대행 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응모 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선정 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공모 기간 : 2024년 3월 1일(금)~31일(일)
※ 공모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6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 (석사, 박사, 통합 과정)
선발 인원 : 0명
공모 기간 : 2024년 3월 1일(금)~31일(일)
※ 공모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한마음연구』 원고모집
발간 시기 : 연3회 - 2024년은 홈페이지 참조
- 2025년부터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투고 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투고 시기 : 연중 접수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투고 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 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한마음연구』는 연회비와 심사비, 게재료, 연구지원기관 표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서류 케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 470 -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 SEON STUDIES

15년만의 특별구족계 수계…“꼭 신청하세요”

조계종, 4월 3~5일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사미(니)계 수지 20년 지나도
구족계 받지 않은 스님 대상
2월 29일까지 신청자 접수
총 대상자 140명 규모 예상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으로 출가해 사미·사미니계를 받고 20년 이상 지나도록 구족계를 받지 않은 스님들을 위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15년 만에 봉행된다. 여법한 수행풍토 환경을 조성하고, 예비승에 머물러 있는 스님들이 종단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오는 4월 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불기 2568(2024)년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은 개인적인 사유로 장기간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고 수행생활을 이어가는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1995년 114명을 대상으로 범어사에서 첫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한 이후 1998년과 2000년, 2009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이번 특별구족계 수계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미(니)계를 수지한 사미·사미니로서 종단 사찰에서 염불과 주력, 포교 등의 수행을 하고 재적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기간은 2월 29일까지며 접수처는 각 재적 교구본사다. 직할교구 재적승은 직할교구사무처로 접수하면 된다.

특별구족계를 수계하면 승랍은 승려법에 따라 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종사 이하 법계까지 자동으로 품서하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 사미(니)계 수지자는 중덕·정덕 법계까지만 자동으로 품서 가능하다. 이후 법계는 승가고시를 치러야 한다. 199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전 사미(니)계 수지자의 경우 특별구족계 수지 후 만 5년이 경과하면 승가고시를 치를 수 있다.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시행 연혁

연도	장소	인원
1995	범어사	114명
1998	통도사	117명
2000	송광사	265명
2009	통도사	52명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은 8박 9일 일정인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보다 짧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별구족계 수계 대상이 이미 20년 이상 승려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과 달리 조계종 총무부가 전산으로 수계 대상자를 파악하고,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과거에는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스님에 한해서 특별구족계를 줬지만 지금은 결계신고를 통해 누가 어느 사찰에 주석하고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다”며 “최대한 개별적으로 연락해 빠짐없이 특별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무부가 파악한 이번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대상자는 140명 규모다. 교구별로는 직할교구가 총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12교구 해인사가 15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가자는 40명, 이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가자는 100명이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출가 이후 여러 이유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분들이 많다. 조계종에서는 구족계를 받지 않으면 정식 승려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짧게는 20년, 많게는 수십 년을 승려로서 살아오신 분들이 특별구족계를 받고 제대로 자격을 갖춰 수행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단이 선명상 프로그램 플랫폼 돼야”

진우 스님, 명상지도자협 예방서
전국 명상센터 건립 구상도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프로그램 대중화를 위해 종단이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2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임원진의 예방을 받았다. 명상지도자협회 상임이사 적경 스님은 이날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족한 단체인 만큼 선명상에 관심이 많으신 총무원장 스님을 돕고 싶다”고 예방 목적을 밝혔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임원진 예방을 받은 진우 스님이 종단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세상에 수많은 명상 기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종단은 간화선을 가장 좋은 수행법으로 판단하고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간화선은 일반 대중에게 너무 어려운 수행법”이라며 “선명상 프로그램은 불교 수행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수용하고 빠르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유럽에서 유행한 남방불교식 명상 등 다른 명상 기법을 지금까지 종단에서 배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러한 구분이 의미가 없다”며 “어떤 방식이든 명상의 목적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소속 20여 개 단체들이 진행하는 명상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표했다. 스님은 “현재 종단에서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프로그램을 잘 살피고 양해를 구해 선명상 프로그램에 가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적경 스님은 “종단에 잘 협조하겠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종단에 브리핑하고 검토를 받고 싶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들을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종단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최소 수십 개에서 최대 108개의 선명상 프로그램들을 누구나, 특히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단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플랫폼에 명상지도자협회도 함께 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전국에 명상센터를 건립해 명상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진우 스님은 “당장 선명상 프로그램을 보급하더라도 지도교사가 확보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명상지도자협회가 지도교사 확보에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자리에는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과 명상지도자협회 측 상임이사 적경 스님, 이사 무애 스님, 운영위원 일중 스님·금혜 스님 등이 배석했다.

이민우 수습기자

신흥사 주지후보 지혜·홍진·금곡 스님

2월 21일 자격심사, 24일 산중총회 개최


지혜 스님


홍진 스님


금곡 스님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후보로 지혜 스님과 홍진 스님, 금곡 스님이 등록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4일 신흥사 차기 주지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주지 지혜 스님, 전 청평사 주지 홍진 스님, 전 낙산사 주지 금곡 스님이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중앙선관위 자격심사는 2월 21일 진행되며, 이날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한 뒤 24일 오후 1시 신흥사 설법전에서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열린다. 이번 산중총회는 주지후보 선출과 더불어 우송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보궐선거에는 대현·정현·각보 스님이 입후보한 상태다.

윤호섭 기자

‘열암곡 마애부처님’ 다라니 기도 재개

조계종 미래본부 3월 2일부터 매월 한 차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기원하는 다라니 기도가 겨울철 휴식을 끝내고 다시 시작된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교구본사 주지스님을 초청해 주관하는 다라니 기도는 3월 2일 오전 9시 30분 열암곡 마애부처님 전에서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과 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재개된다. 다라니 기도는 기도에 이어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법문, 발원문 순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회향한다. 기도법사로는 환풍 스님과 선우 스님, 여진 스님이 함께한다.

매월 한 차례 진행되는 교구본사 주지스님 초청 다라니 기도는 4월 6일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5월 4일 제11교구본사 경주 불국사, 6월 1일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 사부대중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은해사를 시작으로 범어사, 직지사, 고운사가 동참했다.

윤호섭 기자

진현환 국토차관에 전통사찰 관심 당부

진우 스님, 경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전통사찰 경내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2월 13일 진현환 제1차관의 예방을 받고 “조계종단 내에 전통사찰만 800여 개가 있다. 그동안 양성화되지 못한 건축물들이 전통사찰법 개정으로 양성화될 수 있게 됐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국토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차관님이 새로 오신 덕분인지 불교 숙원을 해결할 토대가 형성됐다”며 전통사찰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진 차관은 직지사를 재적사찰로 신행생활을 한 모친과 직지사 운수암에서 고시 공부한 자신의 인연을 전하며 “현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진 차관 예방은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기획실장 우봉 스님이 배석했으며,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윤호섭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4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4년 1월 8일 ~ 2월 28일
■ 개 강 | 2024년 3월 첫째주 3월 4일 (월요일)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향 천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죽음준비교육·미디어 아트로 시니어 복지 선도”

종로노인복지관, 2월 14일 ‘이용자 · 기자간담회’ 개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거동 불편 홀몸어르신 100명에
죽음의 접근·가치·삶 태도 교육
11월, 미디어 체험관 오픈 예정
디지털 복지문화 향상에도 주력
회원 120명에게 건의사항 청취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이 올해 복지관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불교복지 발전을 견인해온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 이하 종로노인복지관)이 올 한해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을 찾아가는 ‘1:1 죽음준비교육 블렌디드러닝’을 펼친다.

종로노인복지관은 2월 14일 관내에서 ‘복지관 이용자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 운영목표와 주력사업을 발표했다. △다양성 지향, 인권중심 시스템 기반 마련 △형평성 지향, 선배시민 나눔문화 선도 △포용성 지향, 지역사회복지 생태계 전환 기반 조성 △미래 지향, 변화주도 ESG 복지 프로세스 재편을 기조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 차별화·고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종로노인복지관은 올해 3월부터 스마트돌봄 사업 일환으로 ‘1:1 찾아가는 죽음준비교육’을 추진한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한 죽음준비교육과 2023년 죽음준비교육 블렌디드러닝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을 직접 찾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올해 안으로 51명의 생활지도사가 구내 100여 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죽음에 대한 접근과 삶의 태도, 죽음의 가치 등을 촘촘히 가르친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체험관도 마련된다. 종로노인복지관은 11월 관내 3층 공간을 활용해 ‘고백 미디어 체험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체험관에는 ‘삶’과 ‘죽음’을 콘텐츠로 한 미디어아트가 상영되며, 셀프 영정사진관과 버킷리스트 작성 공간이 함께 개설된다.

정관 스님은 “종로노인복지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17년간 죽음준비교육을 진행해 왔고, 어르신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죽음 불안감 해소에 탁월한 이번 교육으로 웰다잉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플러스카페는 올해 4호점을 이전해 재개점하고 오피스상권, 2030트렌드, 추억의 음료 등 콘셉트에 변화를 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전통장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종로&장금이’ 사업도 차세대 장금이 양성을 위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확대해 수익 창출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특히 5층 로비에 종로&장금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웰컴플레이스를 만든다.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디지털 복지문화 향상에도 주력한다. 지난해 문을 연 ‘종로시니어디지털센터’를 올해도 활용해 회원 누구나 재미와 기술이 가미된 스마트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종로시니어디지털센터에는 AR체험, 콘솔게임기, 인공지능로봇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부터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디지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회원들의 학습을 보조할 수 있도록 스마트봉사단도 11명 상시 배치했다.

정관 스님은 “종로노인복지관은 디지털 수용성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군 단위나 여러 복지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문의가 잇따른다”며 “친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디지털 약자와 동행하는 포용적 디지털 복지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움직임, 습도, 온도 등을 감지해 고위험 어르신들의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노인 맞춤 디지털 돌봄 체계의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사물인터넷은 종로구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220명에게, ICT기반 AI스피커는 240명에게 지원됐다.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복지프로세스도 재편한다. 자원재순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에코푸리봉사단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4월 중으로 1층 로비 공간에 에코푸리 자원순환스테이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인 위한 수행·포교 사찰에서 배워보세요

한마음과학원, 8월 28~30일 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연수 경주 황룡원서…50명 선착순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를 주제로 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연수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세대별·대상별 법회프로그램 등 법회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1일차에는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방안’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한마음과학’을, 2일차에는 ‘생활 속 마음공부’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와 대응’ ‘화엄세계: 주제가 있는 방’을, 3일차에는 ‘마음불사 도량불사’를 배우게 된다.

스님들을 대상으로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비는 20만원이다. 김내영 기자

불교의례 ‘낙화법’ 세종시 무형문화유산 지정


2022년 10월 세종 영평사에서 열린 낙화전통문화축제에서 반딧불처럼 흩날리는 낙화. 현대불교 자료사진

세종시 2월 14일 지정 발표
영평사에만 전승된 불교의례
‘낙화법보존회’ 보유단체 인정
오는 2월 24일 지정 기념행사

고려시대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관화(觀火) 의식에서 시작된 낙화법은 산 모양으로 쌓아 올린 나무에 불을 붙여 큰 화산(火山)을 보며 재난과 재앙을 소멸시키는 불교의례였다.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민간으로 전승돼 소금·향·숯을 넣고 이를 돌돌 말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태우는 ‘낙화놀이’로 이어졌다. 하지만 불교의 낙화법과 민간의 낙화놀이의 다른 점은 낙화법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낙화봉지를 만들어 다라니를 염송하며, 타오르는 불을 관하는 삼매수행법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불교무형유산이었지만, 낙화법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찰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충남 영평사(주지 환성 스님)에서만 유일하게 낙화법이 전승돼 왔다. 이 같은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영평사에서 전승돼 온 낙화법을 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세종시는 “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세종불교 낙화법’을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월 14일 밝혔다. 낙화법 보존 단체로는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 스님)’를 인정했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낙화법은 세종시에서 봉행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사례”라며 “구전으로 전승된 것이 아닌 간략하게나마 〈오대진언집〉(영평사 소장)에 낙화법의 절차가 묵서돼 있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단체로 인정된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을 갖췄고, 전승 의지 및 기량 등이 탁월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는 계기로 삼고, 다양한 지역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전승에 더욱 힘써 나간다는 계획이다.

영평사에 전승되고 있는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 조계종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문화부장 혜공 스님의 명의의 입장문에서 “낙화법은 경전에 의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불교의례이면서, 낙화법에 참여하는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적 수행법이다. 한국불교에 나타나는 불교의례 특성이 고스란히 담긴 대표적 불교무형유산”이라며 “명맥이 끊긴 줄 알았던 낙화법이 영평사의 환성 스님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다행히 아닐 수 없다. 보존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정월대보름인 2월 24일 영평사에서 정월대보름 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신중일 기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기관 예산 승인

2월 14일 이사회서 가결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가 동국대 및 법인 산하기관의 올해 예산을 승인했다.

동국대 이사회는 2월 14일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제354회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각급기관 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은 △법인 227억원 △동국대 3744억원 △부속병원 4088억원 △산하 종립학교 47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사회는 2월 17일 징계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 이사 성월 스님의 후임에 이사 성행 스님을 추대했으며 교수와 교원, 교직원 등 61명에 대한 신규임용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2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난 4년의 소회를 듣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2024학년도 팔공총림 동화사 승가대학(원) 학인 모집



동화사 승가대학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본사 동화사 승가대학에서는 인천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함양하실 학인스님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사미스님 신입생 00명, 편입생 00명

■ **모집기간**
불기2568(2024)년 4월 1일까지

■ **특 전**
가. 매월 수행지원금 및 소임비 지급
나. 성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수학 지원 (학기당 장학금 지급)
다. 매년 해외 성지순례
라. 모든 신입생 대상 최신형 노트북 지급
마. 개인방사 및 전 강의실 에어컨 완비

■ **입방 문의** : 053)980-7925

동화사 승가대학 학장대행 **진휴**

율학승가대학원

팔공총림 동화사에서는 교단의 계율정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율사 양성의 원을 세우고 부처님의 계율정신을 바르게 세우고 시대정신을 수용한 종헌 종법에 정통한 율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팔공총림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에서 불기 2568(2024)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전문과정 00명, 연구과정 00명
■ **모집인원** : 개방형 00명, 상주형 0명
■ **자 격** : 1. 기본교육기관은 졸업하고 비구계(타종단 개방형가능)를 수지한 자.
2. 불기2568(2024)년도 봄 비구계 수계예정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홈페이지)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 증명서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율원거주 학인만 해당)
6. 사진(3× 4) 3매 7. 연구계획서(연구과정 지원자에 限)
■ **등 록 금** : 1학기당 400,000원(개방형 전문반 학인에 한함)
※ 사중거주 학인은 등록금 면제
■ **모집기간** : 불기2568(2024)년 4월 4일까지(서류제출:우편접수, 방문접수)
(주소: 대구시 동구 동화사1길 1 비로전 율원)
갈마 면접 : 4월 5일 금요일 오후 1시 비로전 율원
■ **신청방법** : 율학승가대학원생 모집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53)980-7955,980-7983 율감: 010)5665-5010 동화사 홈페이지(www.donghwasa.net)를 참조.

팔공총림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
율주·대학원장 **현진**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가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에서는 2024학년도 9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종단의 대 강백을 모시고 2년의 교과과정을 개강하오니 스님들과 재가 신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대상** ■스 님 : 비구, 비구니(타종단 스님 수강 가능)
■재가자 : 5계를 수지한 신도
■ **학 제** ■학 제 : 2년 4학기, 주 1회 수업, 년 2회 2박3일 특강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8시
■수업장소 : 보현사 내 보광명홀 (대구시 중구 문우관길 65)
■수 강 료 : 한 학기당 50만원
■ **수료자 특전** :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졸업시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 인정
■ **교과과정**

	과 목	강 사	특 강
1학년1학기	화엄경	선지 스님	1차 : 미정
			2차 : 미정

■ **접수기간 및 장소** ■기간 : 2024년 1월 1일 ~ 3월 31일
■장소 :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사무처
■문의 : 053)252-3445
■ **제출서류** ■입학원서 (소정양식)
■승적증명서 또는 승려증 사본(스님에 한함)
■반명함판 사진 2매
■ **개강일자** ■2024년 3월 4일(월요일)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원장 **선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도학동35) **전화** : 053)980-7900 **홈페이지** : www.donghwasa.net

상월결사 인도순례 1주년…“불교중흥 이루자”

2월 9일 조계사–청계천 걷기 순례 동참 30여 사부대중 참석
“자승 대종사 유지 계승하자”
3월23일까지 각자 자리서 정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월 9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입재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걷기명상 정진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 동참 대중 30여 명이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불제자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수행자의 걸음이 활기찰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시고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2월 9일 새벽 6시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 앞. 30여 사부대중이 부처님께 정진을 다짐하는 고불문을 올렸다. 1년 전 그날처럼.

2023년 2월 9일 조계사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부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으며 수행 정진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43일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는 고불식이 봉행됐다. 1주년을 맞는 올해 2월 9일은 설 연휴가 겹쳐 자칫 소홀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순례단장 원명 스님(조계사 주지)은 상월결사 인도순례 1주년을 맞아 새벽 걷기명상 정진을 순례 동참 사부대중에게 제안했고, 이에 적지 않은 대중이 정진 동참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성사된 새벽 걷기명상 정진에는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 순례단장 원명 스님, 정광고 교장 영일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정충래 전 동국대 이사, 김용현 동국대 교수,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등 순례동참 사부대중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진에 앞서 대중은 원명 스님이 대표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1년 전 발심을 되새겼다. 동참 대중은 “우리가 내딛는 걸음을 고행이라 여기지 않고 걸음마다 보현행원의 복덕으로 삼아 무엇을 위해 걸으셨고 누구를 위해 걸으셨는지 묻고 답을 찾으며 모두가 그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서 “각자는 일생일대에 더 없는 수행의 기회로 삼고, 모두는 불교의 희망과 수행과 원력을 이끌게 하는 더 없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상월의 정진이 불교중흥으로 나아가고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사회와 인류와 화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길에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오늘의 정진이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산 스님은 “인도순례를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이라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1년 전에는 부처님을 안고 정진했다. 이제는 부처님과 열반하신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지를 마음속에 안고 정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전 인도순례를 시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정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삼창으로 시작한 걷기명상 정진은 조계사를 시작으로 청계천 일원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걷기명상 정진을 마친 대중들은 조계사 대웅전 앞에 마련된 자승 대종사의 진영 앞에서 반야심경 봉독과 의식 뒤 회향했다.

이날 정진에 동참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갈 줄 몰랐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정진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자승 대종사의 유지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실천해 한국불교 중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상월결사 인도순례 동참 대중은 순례 회향일인 3월 23일까지 각자 자리서 정진하기로 했다. 또한 상월결사는 인도순례 회향 1주년 기념행사를 3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대흥사 ‘그린 템플’로 탄소중립 실천

동국대 생태계서비스 연구소와
2월 6~7일, 쓰레기 제로 실천 등



기후위기가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와 동국대 생태계서비스연구소는 2월 6~7일 ‘그린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템플스테이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그린 템플스테이’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서 진행하는 종교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사업의 일환이다. 생명존중, 연기법 등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으로 기후위기 극복의 해법이 담긴 프로그램들이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1박 2일간 일회용품 쓰지 않기, 생명존중 채식, 음식쓰레기 제로 실천 등의 체험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배우고 소통했다.

대흥사 템플스테이 국장 법은 스님은 “우리가 처한 기후위기는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위한 해답은 소비 지향적인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것에 있다”며 “오늘의 배움과 실천 활동이 참가자들의 일상이 돼 나와 지구를 밝히는 지속가능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첫날에는 탄소중립 강의와 염주 만들기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요가, 친환경 스킨 만들기, 발우공양 체험 등이 이어졌다. EM을 활용한 친환경 스킨 만들기 체험 강사로 나선 혜눌 스님(한마음선원 본원)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템플스테이 기간 참가자들의 식단은 모두 지역 농산물로 만든 채식이 제공됐으며, 과일 껍질 등 최소한의 음식쓰레기만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 가족과 함께하는 봄 학위수여식

학 · 석 · 박사 2914명에 학위 수여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2월 15일 ‘2024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학위수여 인원은 학사 2006명, 석사 778명, 박사 130명 등 총 2914명이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사전 행사와 공식 행사 및 부대 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윤재웅 총장이 박사학위 수여자 모두를 직접 격려하기 위해 오전 9시 30분부터 전체 박사학위 수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행사를 열었고, 오전 11시부터는 박사, 석사, 학사 대표와 공로상 수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동국대는 졸업생과 가족들이 동참할 수 있는 졸업식을 기획했고, 대표 수상자들이 수상 소감을 통해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동국대는 지식의 보고이자 인격 성장의 공간이다. 여러분은 동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인생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다”며 “이제 여러분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여러분이 갖춘 능력과 열정은 여러분이 가는 어떤 길이든 환하게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여러분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입학하여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며 대학생활을 보낸 첫번째 세대”라며 “어려움도 많았기에 오늘 이룬 성취가 더욱 뜻깊다. 이러한 힘든 시간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중일 기자

참선재단, 제주 원명선원서 美영화 선사 초청 선칠

4월 5~7일, 좌선 집중수행
금강 · 영화 스님 매일 법문

참선재단(이사장 금강 스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위앙종을 이끄는 영화 스님을 초청해 선칠(禪七)을 개최한다. 이번 선칠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 참선재단 도량인 제주 원명선원(선원장 혜오 스님)에서 열린다.

선칠은 매일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 좌선, 20분 걷기를 14회 반복하는 집중 좌선 수행이다. 매일 금강 스님과 영화 스님이 법문을 하며, 이 시간엔 누구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할 수 있다. 문답을 통해 참여자 각 개인의 상황과 진도에 따른 개별적인 지도도 받을 수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스페인, 대만 등 세계 각지에서 출재가 수행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모든 법문과 지도는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된다.

영화 스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위치한 위산사(Wei Mountain Temple)를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 법장사, 실리콘밸리 금림사, 한국 보산사와 보라선원 등에서 많은 제자를 지도하고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 열리는 선칠에는 영화 스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 전 세계의 수행자들이 찾아온다.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선과 정토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사십이장경, 유교경, 약사경,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반야심경, 육조단경, 화엄경 등 수많은 대승경전을 강설해왔다.

원명선원은 제주 최초로 선원을 개원한 곳이다. 조계종 제5대 종정 서옹 스님, 8대 종정 서암 스님, 숭산 스님과 법정 스님 등 많은 선사가 법을 펼친 도량이다. 근래 40여 년 동안 조사선을 펼친 대효 스님이 참선재단을 설립하였고, 현재는 참사람의 향기 수행 운동을 펼치는 금강 스님이 맥을 잇고 있다.

참선재단 이사장 금강 스님은 “올해 조계종의 주요 종책 중 하나가 선명상의 대중화”라며 “서양문화에 익숙한 현대인과 젊은이들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선칠은 한국 대승불교의 토대 위에 미국에서 발전한 위앙종의 가르침, 수행지도 경험이 풍부한 영화 스님과 그가 이끌고 있는 승가 공동체의 지도력이 더해져, 선명상에 관심을 둔 각계각층 수행자를 위한 정진의 장”이라며 “특히 동서양이 만나 더욱 발전된 선명상법은 서구화된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선명상을 경험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010-6788-8451 김내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발리 불교문화 순례 6일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불리우며,
1,200여 년전 불교문화 역사가 찬연한
빛을 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대탑으로 떠납니다.
보로부두르 대탑은 70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사원으로
1,460면의 아름다운 부조와 432기의 감실에 불상이
모셔져 있는 가히 불국토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부조에는 부처님의 탄생등 부처님의 생애와 전생담을
조성한 생생한 장면들과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최상층에는 부처님의
화엄세계를 조성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고대에 불교왕국이어서 전성기때는
보로부두루 대탑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탑이 조성된
세우사원과 프라오산 불교사원등 많은 사원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최고의 낙원이자 신화의 섬이라 불리는
남태평양의 섬 발리는 현대문명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의 보고입니다.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 (02-2011-1810)
◈ 교육일정 | 5월 27일 출발 ~ 6월 01일 도착 (6일간) ◈ 교 육 비 | 229만원
◈ 방 문 지 | 보로부두르 불교사원, 프람바난 힌두사원, 천탑사원인 세우불교사원, 플라오산 불교상원,
멘듯사원, 파원사원, 발리의 땀박실링 사원, 울루와뚜 절벽사원, 따나롯 해상사원, 따만아윤 사원






담당여행사 및 접수 |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온 가족이 전법·포교사…“우리는 부처님 심부름꾼”

우리는 불자 3代

① 강필화 보살 3대 가족

99세에도 경전 손에 쥔 노보살 스님, 사회복지사, 상담사 딸들 “법사가 되겠다”는 MZ손자까지 3대가 각자의 자리서 전법 매진

부모의 모범적인 신행활동으로 자식들도 자연스레 부처님 인연 불교와 함께 가족의 삶 영글어 “다음세대에도 전법 이어질 것”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연화원광림사에 모인 불자 3대가 ‘사랑해’를 의미하는 수어로 불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가족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부처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필화 보살은 일생을 염주와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아 자식들의 귀감이 됐다.



정옥 씨가 상담사로 일하며 권선했던 금강경 사경노트를 펼쳐 보이고 있다.



1월 20~28일 법산 스님과 함께 한 인도성지순례는 3대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지난 1월 20~28일, 전 동국대 이사장이자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의 〈금강경〉 독송 7만독 성만을 기념하며 진행된 인도성지순례에서 단연 눈에 띈 것은 아흔아홉 살 백수(白壽) 노보살이었다. ‘내일모레’가 100세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하고 곧은 허리, 또렷한 말투, 길고 고단한 여정에도 손에서 염주를 놓지 않는 기도 열정까지 99세 강필화 보살(덕성)은 30여 청장년 불자들 사이에서 어느 하나 뒤처지는 법이 없었다. 강필화 보살은 이번 인도순례에 5~60대 딸들 그리고 MZ세대 손자와 함께했다. 강 보살은 “3대가 함께한 인도순례는 그 어느 성지순례보다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성지순례는 20년간 맏딸이었다가 출가해 50여 년을 스님으로 산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과 함께였기에 잊지 못한 추억이 됐다.

인도성지순례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았을 2월 13일, 불자 3대(代)를 만나기 위해 서울 연화원 광림사를 찾았다. 연화원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사장 해성 스님은 불교의 평등 자비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3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애인 복지에 힘쓰며 연화원을 이끌어오고 있다. 서울 송파에 위치한 6층짜리 빌딩 제일 꼭대기 층에 광림사 법당과 공양간을, 5층에는 연화원 사무실과 장애인 직업훈련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3층도 세를 얻었다. 세들어 사는 ‘남의 집’이지만 오늘의 주인공 불자 3대가 모여 일하고 기도하고 공양하는 공간이다.

강필화 보살은 맏딸이었던 해성 스님이 출가해 장애인들을 위한 법당을 마련했을 때부터 광림사 공양주로 살았다. 법당을 청소하며 밥을 짓고 남은 시간엔 기도한다. 강 보살의 넷째 방정미(60·반야심) 씨는 5층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장애인과 함께 하는 전국 꽃배달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방정옥(58·수향) 씨는 3층에서 상담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정옥 씨의 아들이자 스피치 코치인 이상윤(30·해윤) 씨의 스튜디오도 옆방에 위치해 있다. 한 건물에서 3대가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 때로는 같이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날 인터뷰를 위해 3층에 모인 이들은 “3대에 걸친 불자가족이 탄생할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엄마의 지극한 불심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았다.

“엄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불교를 만났을까요.”

정미 씨는 엄마하면 떠오르는 것은 오직 “기도”라고 말했다. “엄마를 생각하면 항상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사경하는 모습, 염주를 돌리던 모습이 떠오른다”는 정미 씨는 엄마 덕분에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됐고, 해성 스님이 장애인 복지를 하면서 20여 년 전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가 됐다. 정미 씨는 “엄마와 스님의 기도 덕분에 부처님 아래서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졌다. 특히 복지로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행복하다”며 불자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남다른 애착을 드러냈다.

아이를 갖고 사경으로 태교를 했다는 정옥 씨는 “엄마가 하는 것 그대로 했을 뿐 ”이라며 웃었다. 정옥 씨는 “아들 상윤이가 스스로 사경을 하며 최근에는 법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기뻤다”면서 “아들이 사경하게 〈법화경〉을 달라고 했을 때, 부모로서 재산을 준 느낌”이라고 말했다.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옥 씨는 개인적인 신행활동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법활동을 이어간다. 정옥 씨는 “상담을 하다보면 다른 것보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명감이 든다”고 말했다. 힘들고 지친마음을 털어놓는 이들에게 〈법화경〉 사경을 적극 추천한다는 그는 “직접 만든 법화경 사경노트를 보시하고 방법을 알려주면서 나락에 떨어질 것만 같은 사람도 여럿 살렸다”면서 “완성된 사경노트를 가지고 오면 부처님전에 기도 올려주는 것이 상담사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마무리”라고 말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옥 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상담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가 돈벌라고 주신 재능이 아닌 전법하라는 뜻 같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정옥 씨의 신행활동은 아들 상윤 씨의 삶에도 큰 토대가 됐다. 유튜브 채널 ‘이상윤의 언어’를 운영하며 스피치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상윤 씨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또래들에게 전법하는 그날을 꿈꾸며 지금 불교공부와 명상에 흠뻑 빠져있다.

이들은 가족 모두가 부처님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항상 모이면 기도, 부처님 이야기뿐이에요. 간혹 해성 스님이 자리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기도하고 공부하며 생겼던 궁금증을 묻고 답을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우리 가족의 인생과 삶이 묻어나는 시간들이죠.”

해성 스님은 “예전에는 수행에 방해가 될까봐 가족을 멀리했지만, 가족 포교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포교가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면서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일상 속 전법을 해나간다면 불자가족의 탄생은 4대로, 5대로, 그 이후에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딸들과 손자의 인터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강필화 보살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수(白壽)”라고 말했다. 강 보살은 “가족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부처님 길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평생 불자로 산 보람을 느낀다”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도 부처님 법이 전해져 부처님 심부름꾼으로서 행복한 가정이 이어지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1일차(8월 28일, 수)	2일차(8월 29일, 목)	3일차(8월 30일, 금)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마음불사 도량불사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와 대응	
한마음과학	화엄세계: 주제가 있는 방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범어사 · 부산 역사, 책으로 묶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천년의 기록~〉 등 4종 발간

부산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국립진주박물관 협력사업 등
지자체 연계해 출판 성과 내
〈삼국유사〉 가치 알리는 계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부산광역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및 국립진주박물관 출판 협력 사업을 통해 선보인 출판물 4종.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 성보박물관이 불교문화와 부산의 역사를 아우르는 출판서적 4종을 발간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광역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및 국립진주박물관 출판 협력 사업으로 새로운 출판 성과물을 선보이게 됐다"고 발표했다.

출판물 4종은 △〈천년의 기록, 범어사 삼국유사〉 △〈Samguk 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Memory of the World〉 △〈금빛물고기의 비밀-삼국유사 편〉 △〈범어사 역사를 담다, 닮다〉다.

〈천년의 기록, 범어사 삼국유사〉와 〈Samguk 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Memory of the World〉 그리고 〈금빛물고기의 비밀-삼국유사 편〉은 〈삼국유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 연령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삼국유사〉는 대한민국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된 기록유산이며,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국문도록으로 제작된 〈천년의 기록, 범어사 삼국유사〉는 주보돈(경북대), 채상식(부산대), 최영호(동아대)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삼국유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왔다. 영문도록인 〈Samguk 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Memory of the World〉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기록유산 가치에 공감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금빛물고기의 비밀〉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으로 눈길을 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처음 시도한 어린이 대상 도서로서 범어사 창건설화를 모티브로 주인공 '범이'가 이야기를 풀어 설명한다. 주인공 '범이'는 금정산 정상의 금빛 샘물(金井)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金魚)를 쫓으며 범어사를 탐방하고 〈삼국유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스토리로 구성됐다. 밝은 색상과 아기자기한 그림체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범어사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제작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앞으로도 캐릭터 범이를 활용해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개할 계획이다.

마지막 책 〈범어사 역사를 담다, 닮다〉는 범어사 역사와 부산·경남의 지역사를 함께 담았다. 범어사 역사가 부산·경남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범어사의 창건부터 근대까지 역사를 안내한다. 특히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학계 전문가들의 특별논고로 도록의 무게감을 더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부산시 지원사업으로 불교 문화유산이 종교적 산물을 넘어 우리 역사로 인식되고, 다양한 계층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 그림책 제작 등 새로운 시도와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 전쟁에서 범어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은 앞으로 박물관이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후속 연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대중이 공감하는 기획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박물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사진 뽐내보세요

화엄사, 사진 콘테스트 개최
2월 25일~3월 23일 공모


지난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각황전 옆 홍매화. 사진제공=화엄사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사찰의 보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화엄사 화엄매' 축제가 열린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제4회 구례 화엄사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를 2월 25일부터 3월 23일까지 개최한다.

'색을 듣고 소리를 보는 홍매화'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프로 사진과 휴대폰 사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3월 23일까지 주·야간(오전 7시~오후 8시 30분)을 촬영해 화엄사 홈페이지에 한 작품씩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4월 23일 홈페이지에서 최종 수상작을 발표한다.

심사는 작품의 완성도·심미성·활용성, 대중적 흥미도, 홍보 활용 가능성, 적합성, 공모전 기획 의도 부합성, 작품의 창의성 등 위주로 이뤄진다. 동점일 경우 작품성과 활용성 순으로 선정한다.

화엄사 홍보기획위원회는 "촬영할 수 있는 산문 개방 시간 엄수와 홍매화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진 촬영 시 스님 초상권에 대해 화엄사 울력 시간에 노출된 사진만 허용하며, 개인적으로 스님을 촬영한 초상권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들의 울력 시간을 이용해 홍매화와 함께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3월 2일 오전 7시 30분, 3월 9일 오전 7시 30분, 3월 16일 오전 7시 30분"이라며 "출품작 및 수상작 저작권은 화엄사와 구례군이 갖고 추후 홍보 관련 업무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시상은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에 경내 각황전에서 진행된다. 화엄사는 홍매화 개화가 2주 정도 앞당겨질 것을 대비해 2월 24일부터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갑룡장학회, 전주소년원에 장학금 전달

졸업생 5명에 250만원 전달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스님)가 전주소년원을 방문해 장학금을 지원했다.〈사진〉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은 2월 8일 황동현 법무부 전주소년원협의회 고문, 오정열 소플러스 서대전점 대표와 함께 전주소년원인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를 찾아 장학금 2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은 중·고등학교 교과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재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금은 2월 22일 졸업장 전수식 행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5명에게 각 50만원씩 전해질 예정이다.

진성 스님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힘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염정훈 교장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관심 가져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강진불교대학 제19기 졸업식…35명 졸업

2월 14일 강진불교회관서



강진 지역 포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강진불교대학(학장 법오 스님)이 2월 14일 강진불교회관에서 제19기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졸업식에는 학장 법오 스님(무위사 주지), 법화 스님(월남사 주지), 수현 스님(신흥사 주지), 본호 스님(정수사 주지), 한태선 강진불교 총신도회장을 비롯해 35명의 졸업생이 참여했다.

법오 스님은 "불교는 다른 신앙과는 달리 공부가 쉬운 것이 아니다. 무슨 일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행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졸업식은 또 다른 시작으로 미진한 교과과목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더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불교대학은 3월 12일 제20기 입학식을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강진불교회관에서 강의가 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금사회복지관, 소외계층에 자비나눔

200세대에 먹거리 등 후원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이 2월 7일 취약계층을 위한 '설 명절 정(情)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선물은 후원자들이 직접 포장했으며, 떡국 떡·참기름·미숫가루·햄·샴푸·식용유 등 1인당 6만원 상당으로 구성됐다. 선물은 부산진구 개금3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200세대에 지원됐다.

후원에는 사단법인 미소원,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고속열차승무사업소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리안코트, 카카오같이가치, 선진FNS, 아우림 봉사단, 우드빌 부녀회, 부산진구 사랑의열매 봉사단을 비롯한 개인과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했다.

류강렬 관장은 "이번 나눔은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의 결실"이라며 "소외이웃들이 행복한 설을 보내도록 도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쟁, 인류의 평화를 위한 정신

조계종
화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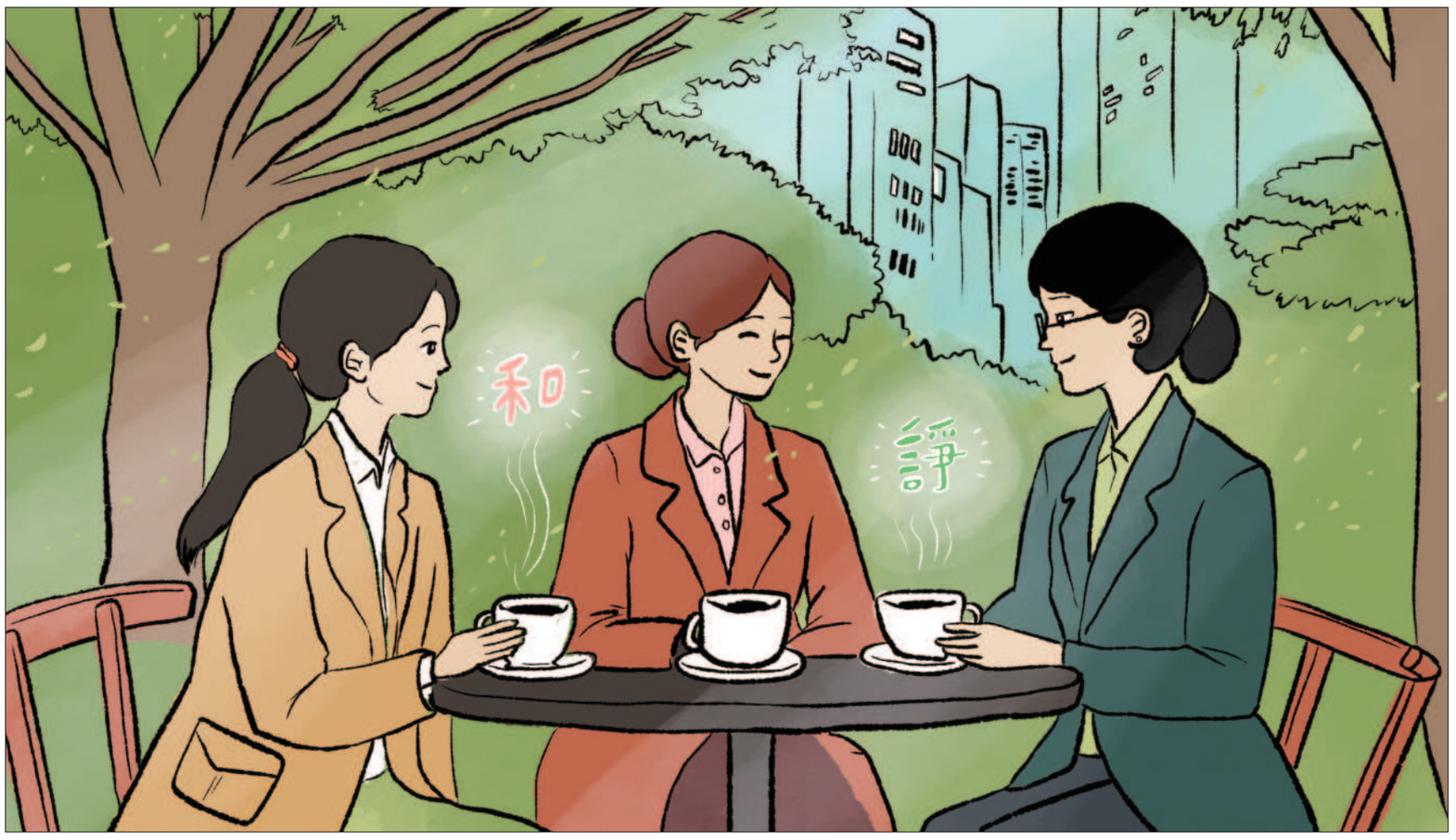
2023 갈등해결 성공사례 수기

⑤ 화쟁위원회 부위원장상
김○○ 씨

초등학생 학부모로 만난 엄마들
나은 교육환경 만들려 함께 노력
배려하고 양보하며 조율도 잘돼

어느 날 두 엄마 의견 차로 대립
교육방향성 두고 감정싸움 번져
탈퇴 언급에 모임 와해될 위기도

갈등대상 한자리서 속마음 확인
서로 진심어린 사과로 마음 녹여
갈등 상황 겪어도 화쟁행자 되자



그림·김상규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같은 반 학부모로 만난 여섯 명의 엄마들이 모여 모임을 결성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만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을 정해 각자의 전공을 살려 품앗이 교육을 하기도 하고, 주말이나 방학 때는 함께 견학이나 체험활동을 다니며 친분을 쌓았다.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한 덕분에 의견 조율이나 화합이 잘 이루어졌다. 이는 곧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두 엄마가 아이들 교육 방향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처음에는 자신의 말이 옳고 상대의 주장은 틀렸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부지불식간에 큰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조화롭던 모임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두 엄마가 갈등 관계에 있다 보니 여섯 명이 모두 모이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아이들의 교육상 중요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난 날조차도 분위기가 얼어붙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내기가 어려웠다.

급기야는 두 엄마가 토론 중에 다시 감정싸움을 하며 언성을 높였고, 두 사람 모두 감정이 격해져 모임에서 빠진다는 얘기까지 내뱉고 말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임 자체가 와해될 상황이었다.

어떻게 하면 두 엄마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모임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10여 년 전 화쟁리더십아카데미에 참여했을 때 배웠던 '화쟁(和諍)'이 생각났다. 화쟁은 대립과 갈등을 봉합해 화합으로 이끈다는 불교 사상으로, 불교계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화쟁을 화두로 제시하기도 했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화쟁의 리더십과 소통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집단이나 갈등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갈등의 종류는 집단마다 다르지만, 갈등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화쟁리더십아카데미에서 배운 바로는 겉으로 드러난 논쟁들 대신 서로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나는 갈등을 겪고 있는 엄마들을 따로 만나 각자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다행히 두 엄마 다 감정적으로 말을 내뱉었을 뿐 진심으로 모임에서 빠지는 것은 원치 않았다.

나는 두 사람에게 우리 모임이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감정을 걷어내고,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조금씩 양보해 공통의 합리적 이익을 도출해 내는 화쟁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대화로써 바람직한 해답을 찾자고 제안했다. 갈등 상황에 놓인 엄마들이 모두 화쟁행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나는 갈등 당사자인 두 엄마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중재자인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시비를 가리지 않고, 그럴듯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다만 두 엄마에게 "갈등은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사라지지도 않으니 화쟁의 방식으로 풀어요.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지혜를 모아서 푸는 게 중요해요"라며 화쟁소통법을 설명해주었다.

갈등 상대를 적으로 보거나, 혹은 무조건 참고 양보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되 본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될 때까지 자세히 물어보라고 덧붙였다. 관계 속에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상대방이 말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불통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는 두 엄마 사이에서 감정이 조금 고조된다 싶을 땐 잠시 대화를 멈추고 각자의 시간을 갖게 한 뒤 다시 모여서 논의하도록 중재했다. 긴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두 엄마 사이에서 생긴 갈등도 실제 의도나 속마음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감정만 커져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내가 옳으면 상대방도 옳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걸 두 엄마 모두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다.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두 엄마에게 나는 "우리는 갈등 상대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제대로 사과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죠"라고 설명하며 서로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두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서로에게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넸다.

두 엄마 사이의 갈등이 마침내 해결되었을 때는 내가 공부하고 깨달았던 화쟁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다. 화쟁리더십 덕분에 분쟁이 화해로 바뀌어 이전보다 더 화목하고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불길이 활활 타오를지 알 수 없는 전쟁터와 같다. 싸움과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 갈등이 만연한 역사 속에서 불교의 화쟁은 인류의 평화를 위한 정신으로 평가 받는다.

화쟁은 집단 내에서의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다. 다른 이와의 의견 차이를 배타적인 차별과 대결로 연결시키지 않고, 화해로 돌려놓는 지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다만 갈등을 겪고 논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들 화쟁행자가 되어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와 소통하는 너른 마음을 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화쟁위원회가 공모한 수기는 개인적인 갈등 상황이 담겨있어 익명으로 게재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미얀마 민주화 참여 않는 불교에 대중 '실망'

'사프란 혁명'때완 다른 분위기
일반 국민 중심의 대항 흐름에
민주진영 중심으로 존경심 저하
"지도자 역량 발휘되는지 의문"

박영빈 객원기자


2007년 사프란 혁명당시 민주화 요구 시위에 앞장선 출가자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주황빛 가사를 수한 스님들이 앞서 민주화 시위에 나서 '사프란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2007년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그러나 지난 2021년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민주화 운동에 출가자들의 참여가 미미하면서 미얀마 내에서 불교계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월 11일 일본의 '토다이 신문 온라인'은 미얀마 불교 연구가인 쿠라모토 류스케 도쿄대 교수의 인터뷰를 특별 보도했다.

현재 미얀마 인구의 약 90%가 불교도이고 출가자는 약 50만명으로 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 버마족이 중심이 돼 최초 통일왕조인 바간 왕조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국교로 지정됐기에 국가구조가 불교를 전제로 형성됐다. 19세기 영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영향으로 불교적인 구조는 붕괴됐지만, 미얀마는 불교를 중심으로 국가정체성을 성립했으며 현대에도 미얀마 사람들의 의식에 불교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쿠라모토 교수는 이러한 전제에서 "미얀마에서는 불교와 정치·민주화 운동이 역사적으로 항상 함께 해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7년에 발생한 사프란 혁명의 경우 당시 군에 진압되는 일반 국민들의 항의를 대신하여 출가자들이 항의시위를 시작한 것에서 비롯됐다. 큰 특징으로는 출가자들이 국부 관계자로부터의 보시를 일체 거부하는 복발갈마(覆鉢羯磨)를 시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미얀마 불교교단은 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를 불교적인 방법으로 표출, 일반대중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민주화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사프란 혁명 이후, 미얀마 내부에서 불교도 이외의 타종교도나 소수민족도 받아들여 국가를 형성하자는 진보주의적 성향이 강한 세력이 확대해 가면서, 보수적인 불교계를 중심으로 이대로는 미얀마가 불교국가가 아니게 된다는 위기감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쿠라모토 교수는 분석했다.

미얀마의 출가자들에 의한 불교 내셔널리즘이 일어나면서 불교계를 중심으로 반이슬람, 반로힝야 운동이 이어졌다. 이 결과 샤프란 혁명의 기수였던 출가자들은 오히려 불교를 옹호했던 군부와 관계가 진전됐으며, 이후 미얀마에서 진행된 총선에서 일부 영향력이 강한 출가자들이 군부출신의 후보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2021년 일어난 군부 쿠데타 이후, 사프란 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많은 출가자들이 군부 지지를 선언하면서 미얀마 대중들의 불교계에 대한 실망감이 고조됐다.

지난해 미얀마의 SNS에서 뜨거운 화제였던 한 익명의 투고는 "쿠데타 후, 미얀마의 테라와다 불교가 진정 신앙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재해를 앞두고 승려들의 지도자적 역량이 발휘되고 있는지 의문이 남으며, 오늘날 스님들의 행동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사회에 대해 무책임한 것처럼 보인다"고 단언했다.

쿠라모토 교수는 "미얀마에선 지금껏 불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금기였다"면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배경에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더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출가자들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프란 혁명 때처럼 출가자가 국민 쪽에 서서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흐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반 국민이 중심이 되고 있다"면서 "물론 민주진영에서도 이전과 같이 출가자에 대한 존경은 가지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전통적인 불교와 미얀마 정치의 연관이 새롭게 정의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와나미 불교사전〉 20년 만에 개정판 발간

최신연구 반영 광범위 인기
'읽을거리' 사전 활용 기대감

1989년 처음 발간되어 전 세계의 불교계에서 자주 사용되어온 〈이와나미 불교사전(岩波仏教辞)〉이 약 20년 만에 개정, 제3판이 출간돼 화제다. 지난 1월 31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최신연구 성과를 반영한 사전의 출간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불교의 용어나 사상은 물론 의례와 역사 등 광범위한 항목을 해설하는 〈이와나미 불교사전〉의 개정 3판이 지난해 11월 완성됐다. 〈이와나미 불교사전〉은 1989년 당시 세계적인 불교학자인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박사와 중국 사상사 연구자로 저명한 학자인 후쿠나가 미츠지(福永光司) 박사 등을 편자로 초판이 출판되었다. 이번 3판에는 불교학자는 물론, 근대 역사학 연구자 등 6명의 연구자들이 편집자로 추가됐다.

편집자들은 제3판 출판에 붙인 후기를 통해 "제3판 편집에 있어서 기존 항목을 재검토해 최신연구 성과를 담는 것과 동시에, 신항목도 다량으로 추가됐다"면서 "역사상의 불교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현대에 살아있는 종교이자 사상으로서 불교를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전을 출간한 이와나미 서점 측 역시 공식 출간사를 통해 "이번 3판에는 근대불교를 비롯한 최신연구 성과를 반영, 200항목 이상이 늘어나 약 5000항목이 담겼다. 단순한 사전이 아닌 풍부한 불교의 세계를 산책할 수 있는 읽을거리로도 사전이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개정되어 나온 〈이와나미 불교사전〉3판. 사진출처=이와나미 서점

특히 이번 제3판에서는 '환경과 불교' '인터넷과 불교' '재해와 불교'와 같은 불교가 현대 사회에서 적용되어 보이는 모습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렸고, 근대 불교에 관해서는 불교가 서양에 소개된 첫 무대로 꼽히는 '만국종교회의' '정교분리' 등의 항목이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한역으로 옮겨진 불교 용어에 대해서는 원어인 산스크리트어를 병기함과 동시에 어떤 이유로 이러한 번역어가 생겼는지에 대해 중국 고전의 용례를 함께 등재하여 그 본래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좀 더 집중하였다.

새로운 사전 출간에 일본 현지 불교학계의 반응은 뜨겁다. 한 연구자는 "전통적인 불교가 근대화되면서 현대로 이어지고, 또 영미권에 전해진 복잡한 흐름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살필 수 있다. 연구의 징검다리로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호평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 "티베트 문화 지켜달라"

설 명절 맞아 축원 메시지 보내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사진〉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티베트인들에게 보내는 달라이 라마의 메시지'라는 제하의 축원 메시지를 보내고 "티베트 문화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에 있는 동포들과 망명 중인 동포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며 "망명 생활과 중국의 핍박 등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지도자로 있는 동안 우리 티베트 동포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비록 중국 공산당이 우리 티베트인들의 종교적 신앙을 침해하려 여러 번 시도했으나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신념과 문화를 더욱 확고히 고수해 왔다"며 "이에 티베트뿐만 아니라 일부 중국인 사이에서도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기뻐했다.

특히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문화를 계속해서 향유하고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는 "티베트의 문화는 만국의 보물과 같다"며 "우리의 문화는 마음 수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점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선행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아가 우리는 새로운 세대와 현상들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오늘날 서양인들이 왜 우리 종교와 전통에 관심을 갖는지 또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달라이 라마는 "나는 티베트 내에서 고국을 지키고 있는 동포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무기가 없는 것만이 평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자라나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티베트의 풍습을 부디 계속해서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美 사찰 강도 침입…불교계 불안 확산

괴한 3명 총으로 승려 위협



미국 전역서 사찰 대상 강도·절도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불교계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엔 뉴욕에서도 사찰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2월 11일 NY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불교 사원에 3명의 강도가 침입했다.〈사진〉 이들은 당일 오후 2시 25분께 프로스펙트 공원(Prospect Park) 인근에 위치한 왓 사마키(Watt Samakki) 불교 사원 뒷문을 통해 침입, 사원 내에 있던 스님 4명에게 총을 겨누며 현금과 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후 현금과 재산을 강탈해 달아났다.

경찰은 현재 피해 규모와 강도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스님들에 따르면 강도들은 보시함과 스님들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도주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찰 관계자는 "스님들에게 평소 보시함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겨두자고 말했지만 스님들은 신도들을 신뢰했다"며 "보시함에 꽤 많은 돈이 있다는 걸 안 강도들이 이를 노리고 총으로 스님들을 위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20일 오전에는 미국 테네시주 머프리즈버러에 위치한 미국의 왓 암파완 사원 요사채에 괴한이 침입해 보시함을 훔쳐 달아났다. 같은 날 왓 암파완 사원에서 약 50㎞ 떨어진 파드마삼바바 사원에서도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치

가야기획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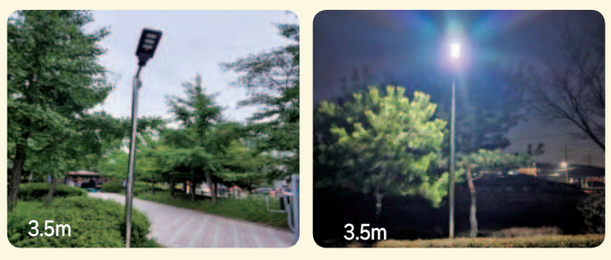
시공전 /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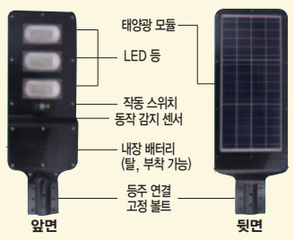
사찰경내 연등 공사



가로등·장엄등



제품 세부 소개



자비연등



칼라연등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 제품건

-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은 전력공급없이 자체발전으로 햇빛이 많은곳은 초저녁에 디밍없이 5시간 동안 매우 밝게 켜지고 그 이후 아침까지 50포 낮게 유지되는 제품 개발 양산(50프로도 매우 밝음)
- 사찰 경내·외에 햇볕이 되는 위치에 매우 유용함. 참고로 배터리가 10년동안유지 됨. 즉 수명이 20년으로 바도 무방함. 이유는 케이스가 ABS 우레탄 코팅고 IP65라 가능합니다.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황금등



광명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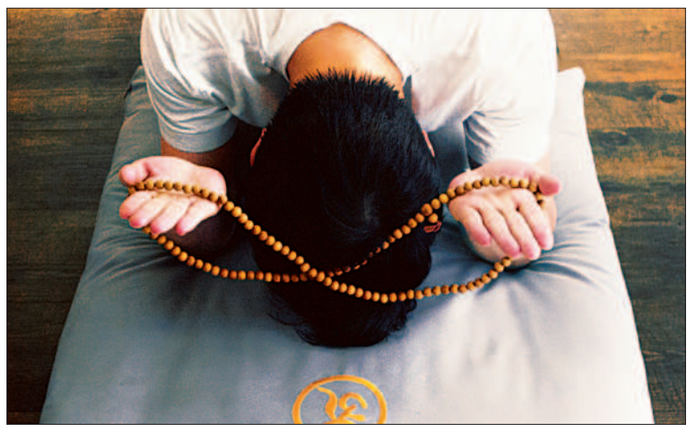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비움도 채움도 '不二'…'禪'적 상징 담은 불교영화

서보형 감독 영화 '벗어날 탈脫'
2월 21일부터 전국 극장서 개봉
모든 관계 끊고 수행하는 영목과
끝남 두려워하는 지원의 이야기
두 구도행이 던지는 메시지 눈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영화 〈벗어날 탈脫〉 스틸 컷. 오로지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남자 영목〈사진 왼쪽〉과 전시를 위해 영감을 얻으려는 여자 지우〈사진 오른쪽〉의 이야기를 다뤘다.

남자 '영목(임호준 분)'은 자신을 비우는 수행을 한다. 죽음을 느꼈기에 절박하다. 죽기 전에 깨달음을 얻어야 하기에 여자친구와도 이별하고 108배와 좌선에 매달린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미술 작가 '지우(위지원 분)'는 전시를 위한 영감을 얻고자 한다. 그녀는 끝남이 두려워 엔딩에 이르기 직전의 순간만을 그린다.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 골몰하는 그녀에게 갑자기 한 남자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2월 21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개봉되는 서보형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 〈벗어날 탈脫〉(Not One And Not Two)은 감독 자신이 깨달음을 체험하고자 매일 108배와 명상을 하던 시기에 우연히 체험한 오묘한 순간을 영화적 언어로 펼쳐낸 작품이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자각의 순간을 깨달음을 구하는 '영목'과 영감을 구하는 '지우'의 순간을 통해 드러냈다.

장편영화로의 데뷔지만 서보형 감독은 단편 영화 〈탈날 탈〉과 〈솧〉으로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돼 화제를 모았다. 〈솧〉으로 광화문국제단편영화제 단편의 얼굴상,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을 비롯해 미장센 단편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피렌체 한국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받으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탈날 탈〉은 전주국제영화제 등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이번에 개봉되는 〈벗어날 탈脫〉은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제47회 서울독립영화제, 제2회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에서 초청되며 "도발적인 시각적 전위를 다채롭게 펼쳐낸다" "자기만의 속도와 유머를 만들어낸다" 등의 호평을 받았다.

영화를 통해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불일불이(不一不二)'다. 그랬기에 영문 제목도 'Not One And Not Two'다.

서보형 감독은 "선불교에 몰두해 화두를 붙잡고 매일 108배와 명상을 하던 때가 있었다.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보고 싶었지만, 아무리 해도 얻지 못하여 몇 년을 괴로워하던 중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이것뿐인 오묘한 자각을 체험했다"면서 "말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이것을 영화적 언어로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不一不二)'는 불교철학을 적용하여 이야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인물 모두 죽음과 끝(The End)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구도를 행하고 사유하지만, 결국 두 인물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독특한 서사 구조에 서보형 감독은 자신의 전매특허인 4:3 화면비의 회화적 미장센과 감각적인 연출이 어우러지며 매혹적인 영상미를 선보인다. 이는 본래 미술을 전공하고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개인전을 갖기도 한 서보형 감독의 독특한 이력이 있어 가능했다.

런닝타임 72분 동안 영화는 모호하며 알쏭달쏭한 상징들이 이어진다. 명확하지 않아 난해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화의 장면을 곱씹게 된다. 사실 선가(禪家)의 108공안들은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담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불교영화 〈벗어날 탈脫〉 속 구도의 상징과 비유를 읽는 건 오롯이 관객의 몫이다.

'100일 공개' 칠불사 아자방, 체험하려면 '지금'

민속유산 지정 기념해 일시 개방
2월 7일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하루 3차례, 30명 인원 제한키로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 직접 안내


하동 칠불사 아자방이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동안거 기간 한 번 불을 때면 100일간 온기가 유지된다고 알려진 하동 칠불사 '아자방(亞字房)'이 지난해 12월 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지정된 것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일반에 개방하는 공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하동 칠불사(주지 도응 스님)는 칠불사 아자방의 국가민속문화재 승격과 지정을 기념해 2월 7일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100일간 한시적으로 일반에 개방한다. 오전 10시, 오후 2시와 3시 하루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공개 체험행사는 참여인원을 회당 30명으로 제한하고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이 직접 안내한다.

행사 참여인원은 주지 도응 스님의 안내에 따라 아자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으며 잠시 앉아 온기를 느낄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칠불사는 지리산 문수보살의 기도처인 동국제일선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1세기경 가락국 김수로왕의 일곱왕자가 출가하여 성불한 가야의 불교문화를 오롯이 간직한 곳이다. 아자방은 독특한 형태의 선방으로 스님들이 벽을 향해 수행할 수 있도록 방 안 네 귀퉁이를 바닥면보다 한 단 높게 구성함으로써 한자 '亞'모양의 아자형(亞字型) 방 전체에 구들을 놓아 만든 온돌방이다.

아자방은 1976년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2017년 진행된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와편·기단석·확돌 등 고려시대의 유물과 함께 여러 기록 자료에 의해 아자방 온돌은 선방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칠불사 아자방은 옛 선비들이 지리산을 여행하고 남긴 각종 지리산 유람록, 일제강점기 발행됐던 신문기사 등 당시의 자료들을 통해서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칠불사는 불교사적 의미와 우리나라 전통 온돌문화 및 아(亞)자 형태의 특징과 민속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승격 신청하게 되었고 5년여의 시간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2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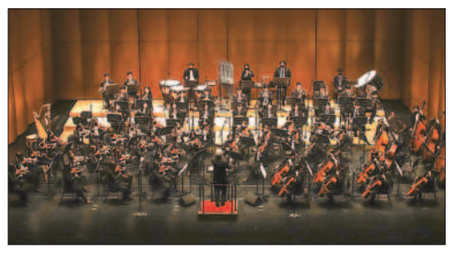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은 "불자님들과 방문객들이 별천지 하동이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 칠불사 아자방 온돌에 오셔서 따스한 온기와 신비로움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칠불사 총무 홍법 스님은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분들과 부처님의 큰 가피에 보답하는 스님들께 가사를 지어드리는 가사불사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칠불사는 이번 가사불사를 통해 모연된 가사는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하는 스님들께 대중공양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만해 스님 '님의 침묵' 오케스트라로 만난다

경기도 광주필하모니 오케스트라
2월 25 · 27일 광주 · 대구서 공연
시 낭송, 비보이, 무용 '콜라보'도


경기도 광주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3.1절 105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시인인 만해 한용운 스님을 기리는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린다.

경기도 광주필하모니 오케스트라(지휘자 김기원)는 2월 25일 오후 7시 광주광역시 예술의전당 대극장과 2월 27일 오후 7시 대구광역시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3·1절 기념 한용운이 부르는 님의 침묵'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의 시작은 서기철 전 KBS 아나운서의 '님의 침묵' 낭송이 알린다. 이때 광주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시벨리우스의 즉흥곡(Impromptu)을 배경음악으로 선사하며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서곡(Overture Finlandia)'도 선보인다. 만해 스님의 삶과 문학, 애국정신을 소개하는 파트에서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Op72. 2번'이 배경음악으로 연주된다.

낭송가 박종선은 만해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 '나의 꿈'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등을 잇따라 낭송하며 낭송 중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자이자 제97호 도살풀이 전수자인 무용가 정은선이 춤사위를 펼친다.

제2부의 시작은 댄서 서승현이 비보잉 공연으로 막을 오르며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공연과 테너 최용호와 극단 '파발극회'가 '독립선언문'과 '독립군가'를 선보인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예스24'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한편 광주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경기도 광주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공연단체로서 2019년 창단되었으며 광주시의 부족한 클래식 공연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단된 공연 전문 오케스트라다. 신중일 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할인 (제품 소진시 까지)
고가구·병풍 30% 할인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등설치 스카이 3월 30일까지 할인 설치 합니다.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판매합니다.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2월말까지 행사중입니다.
신제품 인등 신제품 많이 준비 되었습니다. 주문제작 합니다.
수제부적 50장 20,000원씩 / (국산)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2024년 신년맞이 행사
안녕하세요. 동호 불교용품 물류센터입니다.
저희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삼베 ,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20개 ····· 70,000원
5일초 24개 ····· 75,000원
3일초 40개 ····· 75,000원
1일초 100개 ····· 85,000원
15일초 12개 ····· 105,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대량 구매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중.(기존 불상 가능) ※3자기준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 12,000원)
※천불이상은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 검색 NAVER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
■ 대표번호 : 054-762-8200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 문의전화 : 010-9748-3366
■ 계좌번호 :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4~2/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6	정혜결사문:선정과지혜로 세상을 밝혀야	보조지눌/원순 역해	법공양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말라	류시화 지음	더숲
3	육조법보단경(큰수레총서9)	육조혜능/학담	큰수레	8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증보판*양장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4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 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9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10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책세상

현대사회 문제 해결할 열쇠 '불교'



현대와 불교사상
이중표 지음
불광출판사
2만원

과학이 가져다준 편리한 삶
이면에는 생태계 파괴 비롯
인류 위협하는 문제 산적해
이상적인 인간상 無我 제시



강남 봉은사 미륵대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구에서 시작된 과학문명은 인류에게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줬다. 각종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과학을 배제한 인류의 삶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듯 과학중심으로 인한 그림자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생태계 파괴나 자원 고갈,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인류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점점 더 크게 다가온다.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가 쓴 〈현대와 불교사상〉은 불교학자로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불교의 관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결과물이다. 앞서 2010년 초판을 냈지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은 덜어내고, 수정·보완을 거쳐 개정판으로 다시 독자들을 찾아왔다.

이중표 명예교수는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의 가르침이 진실이라면 불교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여러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중표 명예교수는 현대의 위기와 원인부터 짚는다. 과학기술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구인들이 그 힘을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으면서 자행한 자연 파괴부터 식민지 지배와 착취를 통한 인간성 상실과 인종차별 등을 언급한다. 이런 산업자본주의로 인한 비판에 이어 불교가 서구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역설한다.

목차 역시 △현대사회와 불교 △현대사조와 불교 △불교와 일반시스템이론 △진화론과 창조론의 문제 △불교의 자연관 △불교의 인간관 △불교의 생명관 △자비의 윤리 △현대인의 삶과 선(禪)으로 구분해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윤리로 불교를 강조한다. 문제의 원인이 어째서 과학에 있는지를 밝히고, 미래사회에 인류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이중표 명예교수는 연기와 사성제, 팔정도 등 다양한 교리를 현대사회 문제와 엮어 풀어내면서도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무아(無我)를 제시한다. 세계를 분리된 부분들의 집합으로 보는 원자론적 세계관에서 상호 의존관계를 통해 통합된 전체로 보는 전체론적 세계관으로 변화하며, 이 같은 변화가 새로운 윤리의 출현을 요청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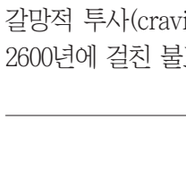
저자는 심층생태학, 시스템이론 등으로 알려진 새로운 세계관이 불교의 연기설과 일치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자비는 무아의 실현임과 동시에 무아의 체득이라고 강조한다.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 무아의 삶을 실천하면서 무아가 된다는 뜻이다. 자비의 윤리는 인간을 어떤 본질로 규정하지 않고, 삶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하는 존재로 이해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책은 이 밖에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를 깨달을 수 있는 전통 수행법인 '9차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아 이론적인 해설을 넘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도 다뤘다.

▲저자 이중표 명예교수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정년 후 동 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장, 범한철학회장, 불교학연구회장을 역임하고, 연재 불교신행단체 '붓다나라'를 설립해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 〈정선 디가 니까야〉 〈정선 맛지마 니까야〉 〈붓다의 철학〉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담마빠다〉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등 다수가 있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불교심리학 가능성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지평
모리츠 키 편집
이성동 · 김태수 옮김
운주사/ 5만5000원

'대원불교학술총서' 시리즈의 13번째 책인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지평〉은 전통적인 불교명상과 불교심리학을 현대의 심리학 이론 및 실천과 융합하여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전망과 혁신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책이다.

불교적 명상과 연구를 통해 치료와 변화의 과정을 경험한 다양한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교육자들이 불교심리학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사회구성주의 심리학에 기반한 접근 방식인 '관계 불교'라는 현대적, 현실적, 실천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상좌부불교, 아비달마불교, 대승불교의 전문가들과 임상 의사,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명상 코치, 교육자 등 20여 명의 최고 권위자들이 참여했다.

책에서 말하는 '불교심리학'은 붓다를 마법의 기적을 행하는 전지전능한 구세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사후세계의 낙원이나 천국을 약속하는 갈망적 투사(craving projections)도 배제한다. 2600년에 걸친 불교심리학의 역사에서 '새로운' 불교심리학은 '초월적 진리'를 폐기하고 메타 비전인 사회적 구성을 포용하는, 몸과 말과 마음이 통합된 사회-임상-신경 심리학이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구' 불교심리학과 '새로운' 불교심리학 사이의 공통점과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을 확인하고,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관계적 방식으로 일상의 실존적 괴로움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정점을 '관계 불교'라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해석으로 정리한다.

저자들은 '중도'를 통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실존적 고통인 둑카(dukkha)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론 등을 '관계적 심리학'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붓다의 가르침을 심리적 통찰에 기반한 생활 방식, 또는 심리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자 이성동 명일엠의원 원장·김태수 대진대 연구교수는 후기를 통해 "각각 논문들을 살펴보면 기존 상좌부불교, 대승불교 그리고 요즘 각광받는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 식의 서구 불교의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불교(Neoyana), 즉 대승을 넘어선 신승(新乘, 새로운 수레바퀴)불교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불교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대승기신론 정수 온전히 담다



대승기신론소 혈맥기7
공파 스님 역해
운주사/ 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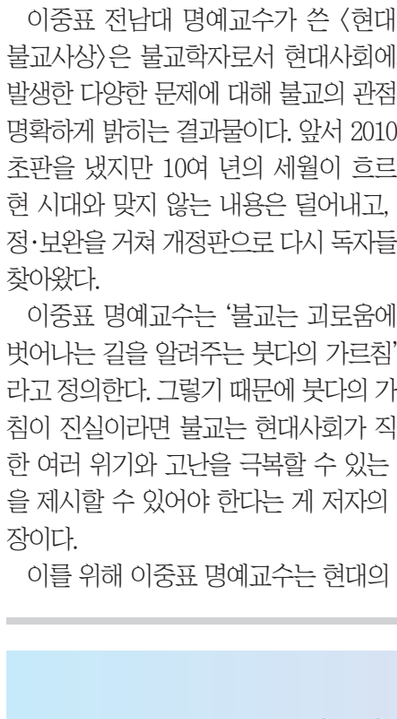
〈대승기신론〉은 마명보살이 대승불교의 이론과 수행을 체계화하여 제시한 논서로, 대승불교의 정수와 핵심을 담은 기본 교과서이다. 대승불교 전반을 아우르는 근본 이론이 담겨 대승불교의 개론서로 불리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대승기신론〉을 해설한 수많은 주석서가 나왔으며, 그 가운데 으뜸은 단연 원효 스님의 〈소별기〉다.

공파 스님은 '원효센터'를 개설해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해동소〉 강의만 32차례 하고 있는, 〈대승기신론 해동소〉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이다. 이 책은 그동안의 강의 내용을 다듬고 정리하여 엮은 것으로, 〈기신론〉과 〈소별기〉의 원문과 번역, 해설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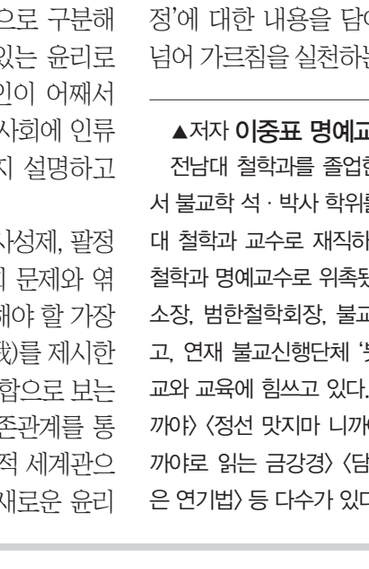
특히 해설은 기존 주석서나 해설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자적·교학적 풀이와는 완전히 그 결이 다르다.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생활 속 이야기들이나 비유를 통해 평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마치 수필을 읽는 듯 편하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대승기신론(해동소)〉이 말하고 있는 정수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맛볼 수 있다.

이 점은 제목에서 확인된다. 쉬우면서도 마명보살과 원효 스님의 맥박을 고스란히 수혈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자는 자신 있게 '혈맥기'라고 이름 붙였다. **신중일 기자**

온전한 내 삶을 찾게 해주는
'즉문즉설의 대가' 혜봉 법사의
친절한 명상 수업!



알아차림부터 화두까지,
명상의 보석 같은
정수만 쏙쏙 뽑아
문답으로 정리한 명저!
내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지혜를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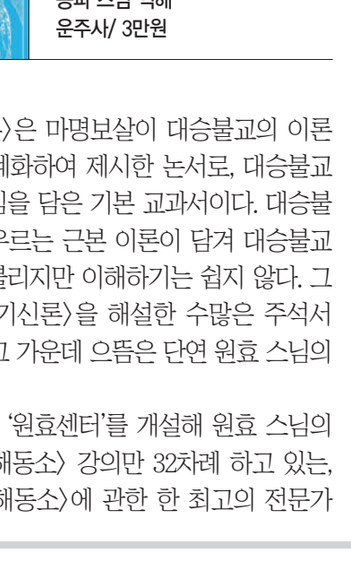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오상목 지음 | 416쪽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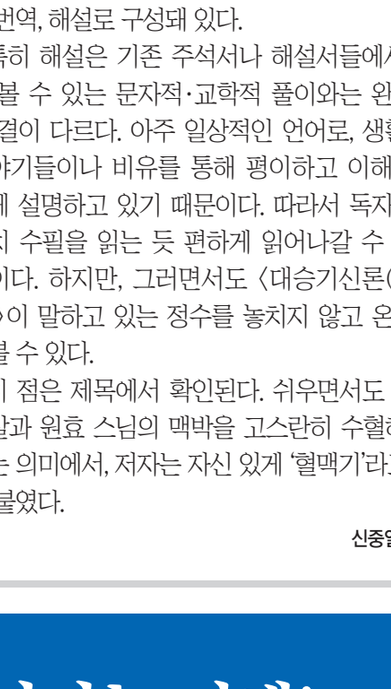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나보다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남긴 글, 한시(漢詩)에서 발견하다
불교계 대표 문장가이자 한문학에 정통한 원철 스님이
한시에서 길어올린 '언제든 나의 중심을 잡아줄 삶의 지혜'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혼자라도 걱정 않는 삶



원철 지음
264쪽
18,000원



반야심경, 알기 쉽게 도표로 읽다



도표로 읽는 반야심경
글 김명우, 그림 배종훈
민족사/ 1만8500원

260자로 空사상 알려주는 반야심경
불교용어, 범어·한역본 비교 풀이
'유식무경'적 해석, 유식학 공부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반야심경〉은 '위대하고 완전한 지혜(般若)를 바탕으로 중생을 고통의 세계(此岸)에서 깨달음의 세계(彼岸)로 건너게(度) 하는 반야경의 핵심(心)을 담은 경전(經)'이라는 뜻이다. 반야바라밀다(반야경)의 심장이 되는 핵심을 추린 경전으로 600권 분량의 경전을 260자로 추린 것이다.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가운데 가장 간결해 한국 불자들이 제일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하면서 '오온(五蘊)이 모두 공하다'를 깨닫고 사리불에게 말해주는 형식으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관세음보살은 6바라밀, 즉,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를 실천하고 공을 체득했다. 법회 때마다 술술 독경하는 〈반야심경〉이지만 내용과 그 뜻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도표로 읽는 반야심경〉은 〈반야심경〉 입문자에게 꼭 맞는 해설서다. 이 책은 도서출판 민족사의 '도표로 읽는 시리즈' 8번째 작품이기도 하다.



〈도표로 읽는 반야심경〉의 저자 허암 김명우는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과 동아대학 대학원에서 유식사상을 전공했다. 〈반야바라밀다심경〉 〈범어로 반야심경을 해설하다〉 〈왕초보 반야심경 박사 되다〉 〈유식으로 읽는 반야심경(唯識でよむ般若心經)〉 총 4종류의 〈반야심경〉 해설서를 출판했다.

수십 년 동안 반야심경에 대한 해석을 깊이 있게 해온 저자는 이 책 도표로 읽는 반야심경을 통해 불교 초보자들이 누구나 편하게 읽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 단순히 반야심경 그 자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 불교의 기본 용어와 사상 또한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책의 특장점이다. 심오한 공의 세계를 편안하고 즐겁게 이끌어주는 본격 반야심경 길잡이로 불교 초심자나 일반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할 만하다.

이 책의 강점은 범어를 한자로 번역한 〈반야심경(현장 역)〉의 한자 불교용어를 범어본과 한역본을 비교해 풀이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반야심경〉의 범어본과 한역본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범본 문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본, 한역본(현장 역), 에드워드 콘즈(E·Conze)의 영역본을 비교해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사상을 '오직(唯) 마음(識)만이 있을 뿐이고 바깥의 대상은 없다(無境)'는 '유식무경(唯識無境)'의 유식학 입장에서 해석했다. 언뜻 보면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식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공사상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마음(전5식, 제6 의식, 제7 말나식, 제8 아뢰야식)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유식에서도 〈반야심경〉의 공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지향점은 같다는 것이다. 유식을 처음 접하는 독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중간중간 유식 용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첨가해 이해를 돕는다.

나를 평안으로 이끄는 부처님 말씀들



그림과 함께 읽는 감명 깊은 초기경전
일아 스님 번역
불광출판사
2만2000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것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고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종교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읽고 새겨야 할 만한 보편타당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불교경전 가운데에도 '고전'의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담마빠다〉 〈숫따니빠따〉 〈니까야〉 등의 초기경전이다. 종교적 가르침보다는 마음공부에 대한 가르침으로 읽을 수도 있는 이 경전들은 실제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불교 경전으로 꼽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초기경전은 그 양이 방대해 이를 읽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아닌 단점이 존재한다. 부처님이 제자를 위해 설법한 가르침도 들어 있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림과 함께 읽는 감명 깊은 초기경전〉은 일아 스님이 초기경전 가운데 현재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만 가려뽑은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불교경전' 〈담마빠다〉에서 188개의 게송, 가장 오래된 불교경전 〈숫따니빠따〉에서 88개의 게송, 그리고 크고 작은 초기경전을 모아놓은 4부 니까야와 〈테라가타〉 가운데에서는 24개의 경전 내용을 뽑았다. 그래서 방대한 초기경전을 모두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핵심만은 알 수 있다.



일아 스님은 초기경전 번역서와 연구서를 통해 대중에게 초기경전의 면모를 정확히 알려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이 책은 일아 스님이 머리말에 "순수하고 맑은 게송들을 더 빛나게 할 도우미는 무엇일까를 고심했다. 그것은 바로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싣는 것이었다"고 밝힌대로 경전의 구절과 함께 할 사진과 그림을 선택·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더불어 경전 내용과 사진만으로 이해가 부족할 것 같은 부분에는 스님 나름의 단상을 덧붙여 경전을 다시 한 번 새기며 사색하는 기회를 줬다.

신중일 기자

김홍도 진면목, 선종화에도 있다



김홍도 새로움
정병모 지음
다할미디어
4만2000원

김홍도의 그림 '염불서승'에 대해 정병모 한국민화학교 교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김홍도 새로움〉에서 이 같이 묘사한다.

"문득 깨달음의 순간, 뒷모습으로 표현한 것부터 범상치 않다. 사변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앞모습 대신 좀 더 솔직한 뒷모습을 선택했다. 달마대사상처럼 뒷모습을 그린 상은 더러 있지만, 목덜미에서 깨달음의 절정을 잡아낸 것은 김홍도의 날카로운 관찰력이다."

화가 김홍도(1745~1806?)에 대해 우리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조선시대 궁중 도화서에서 과감하고 자유로운 발상을 내보인 천재 이단아로 알고 있다. 실제 김홍도는 전통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대에 맞는 제재를 창안하고 새롭게 표현하고 새로운 기법을 시도했다. 그가 보여준 창의성은 당시 화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조선회화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는 조선 후기 민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김홍도를 있게 한 것은 풍속화다. 김홍도는 극적인 스토리텔링과 서정적인 휴머니즘으로 한국 풍속화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하찮게 여겼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담긴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 보였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그가 중년 이후에는 내적으로 심화한 작품세계를 보인다. 이 같이 화제(畫題)가 변한 이유를 정병모 교장은 김홍도의 생애에서 찾는다. 승승장구하던 김홍도는 정조 어진 모사의 포상으로 임명된 연풍현감에서 파직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의금부까지 압송됐지만, 정조에 의해 원행을묘 행사에 동원되며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역사상 가장 스펙터클한 〈화성원행도〉 제작에 참여했다. 이후에 김홍도는 재야에서 그림을 그렸고, 이 당시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관조하는 내향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불교 선종화(禪宗畵)다.



김홍도의 '남해관음',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앞서 밝힌 '염불서승'과 더불어 정병모 교장이 꼽는 김홍도의 선종화 명작은 '남해관음'이다. 푸른 바다 위에 광배를 두르고 화관을 관음보살 뒤로 선재동자는 버드나무 가지를 꽂은 정병을 들고 서 있다. 일반적으로 선재동자가 관음보살 앞에 엎드려 도를 구하지만, 김홍도는 진짜 수줍은 아이의 모습으로 선재동자를 친근하게 묘사했다. 관음보살의 호상도 엄숙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이다. 김홍도의 '남해관음'에 대해 정병모 관장은 저서에서 이 같이 평한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사항은 풍부하게 사용한 선의 운율이다. 파도 위로 솟아오른 남해관음의 경우 마치 물이 끊는 듯한 파도가 그대로 옷으로 바뀌었다. '파도의 옷'이다. 〈중략〉 이 작품에서는 종교적 권위가 굴레로 작용하지 않고 예술적 영혼이 자유롭게 춤춘다."

이외에도 김홍도는 '혜능삼매', '노승염불' 등의 선종화를 그렸다. '노승염불'의 제문에 '부처님 말씀을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외우고 또 외운다(口誦恒河沙復沙)'라고 쓸 정도로 김홍도는 만년에 불교에 심취했다. 정병모 교장은 김홍도의 선종화에 대해 혁신이자 새로움이라고 했다. 초반에는 남종화의 간결하고 맑은 화풍이었지만 종교적 체험이 이뤄진 이후에는 종교적 깊이와 정신까지 갖춰졌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과 동일시한 세계를 선의 화폭에 담았기에 김홍도의 선종화는 위대할 수 있었다.

신중일 기자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원행 대종사

“욕망의 온도를 낮춰라… 그래야 지구가 산다”



자광 원행 대종사는… 독경과 염불소리에 이끌려 약관의 나이에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해 한암 스님, 탄허 스님, 만화 스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수행정진했다. 10 · 27법난, 월정사 분규 사태 등으로 몸과 마음을 크게 상했지만, 선지식들의 가르침에 따라 평생을 정진했다. ‘사원의 보수와 중창은 청정불국가람을 수호하는 것이며 이것도 수행’이라는 한암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전 자광사를 중창불사하고, 은사스님을 도와 월정사 대웅전 중창을 이끌었다. 월정사 부주지 소임을 겸해 동해 삼화사 주지를 맡아 노사나철불을 복원했다. 지역 포교에도 힘써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로 부임해 원주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원주경찰서 경승실을 새로 장엄했다. 원주교도소를 중심으로 20년 동안 재소자 교정교화에 나서기도 했으며, 이 같은 공로로 2023년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선덕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법무부 중앙교정위원회 고문, 동해해양경찰청 경승위원, 평창경찰서 경승실장, 대한언론인회 고문, 월정사 탑돌이보존회장, 10.27법난피해자모임 회장 등 불교계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폭설이다. 차창 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하얀 풍경만이 펼쳐진다. 월정사를 품은 오대산이 그려내는 설경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도 깊이 침잠하게 한다. 신라 자장 스님이 문수보살 성지를 찾아 7년이란 긴 세월을 주유한 끝에 낙점한 오대산.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있어 1만 보살을 거느리고 항상 설법하는 성산(聖山)이다.

속진의 세계에서 성(聖)의 세계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천왕문을 들어서자 적광전과 동별당 서별당을 비롯한 전각들이 설법을 들려주는 듯하다.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 주석하며 1600년의 역사를 가진 월정사에 ‘화엄성지’라는 명성을 더했다.

월정사 선덕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자광 원행 대종사를 친견했다. 인터뷰는 경내 황화당에서 진행됐다. 자리에 앉아 원행 스님은 그 전에 월정사를 온 적이 있느냐고 물으신다. 여러 번 왔지만, 눈 오는 날은 처음 온 것이라 답하며 스님의 근황을 여쭈었다.

세수 팔십이 넘었지만 원행 스님은 지금도 날마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경내 팔각구층석탑을 탑돌이한다. 어른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구가 온전하기를,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기원하신단다.

“이젠 좀 편하게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여쭈니, 원행 스님은 “수행자는 일상의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현답을 내놓았다.

“진정한 자기를 찾는 일은 이렇듯 사소한 생활규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력이 지극해지면 같은 시대 나아가서는 미래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사소한 개인의 육바라밀이 지구촌 사람들과 삼천대천세계의 중생에게 회향되는 자비로운 주문이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평생 화두 “멍청이가 되어라”

원행 스님은 만화 스님을 은사로 탄허 스님을 법사로 수계 득도했다. 원행 스님은 에세이집 〈월정사 멍청이〉를 출간했고, 곧잘 자신을 ‘월정사 멍청이’라고 부른다. 그 연유는 스님의 출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행 스님은 20대에 염불과 독경소리에 이끌려 출가를 결심했다. 오대산에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라는 고승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서울에서 걸어서 월정사에 도착했다. 크게 반겨주는 사람도 없이 일주일이 흘렀고, 기다리던 큰스님의 부름이 있었다. 이때부터 월정사에서 행자생활이 시작되었다. 수계식을 갖고 불명을 받았다.

“탄허 큰스님께서 ‘〈화엄경〉에 나오는 십지명(十地名) 보살 가운데 칠지 보살인 원행지가 있다. 너는 원행(遠行)이라 해라. 그리고 멍청이가 되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법명을 주셨어요. 그때는 난 똑똑하고 영리한데 왜 멍청이가 되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품었지만, 평생의 좌우명으로,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원행 스님은 행자시절부터 별좌·공양주·원주 10년에, 재무 10년, 총무 10년, 부주지 12년을 했으니 오대산 월정사 변화를 모두 확인한 산증인이다. 탄허 스님과 만화 스님의 일상 그대로가 큰 가르침이 됐고, 지금도 어떤 일에 부딪히면 어른스님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까 생각하게 된다.

염불, 독경 소리 이끌려 佛門에 들어
한암·탄허·만화스님 법통 이어 정진
새벽예불 후 탑돌이, 원각경 독경 등
모든 일상이 선지식 가르침서 비롯돼
“수행자는 일상 질서 무너져선 안 돼”

“월정사에 출가해 보니 6.25 전란 때 아군의 방화로 불타버린 대웅전을 중창하는 불사가 한창이었어요. 만화 스님은 13살에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한암 대선사의 회상에 출가하셨지요. 6.25전쟁 때도 피난을 가지 않고 끝까지 한암 스님을 시봉하신 효상좌입니다. 10.27 법난으로 옥고를 겪었지만,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으니 인욕보살입니다. 하지만 상좌들에게는 참으로 엄격하신 분이었지요.”

한암 · 탄허 · 만화 스님의 가르침

월정사의 법통은 한암 스님, 탄허 스님, 만화 스님으로 이어진다. 세 선지식의 법통을 이어받아 수행정진한 원행 스님은 〈성인(聖人) 한암 대종사〉 〈탄허 대선사 시봉 이야기〉 〈만화희찬 스님 시봉 이야기〉를 출간했다. 특히 한암 대선사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최고의 선승이자, 시대의 사표로 종정에 4차례나 추대된 위대한 선지식이시다. 현대 한국불교의 기틀을 확립하신 시대의 등불이었음을 〈성인 한암 대종사〉에 오롯이 담았다. 〈탄허 대선사 시봉 이야기〉에는 탄허 스님의 〈화엄경〉을 비롯한 역경(譯經) 불사와 유불선의 사상에 정통한 최고의 학승으로 강의로 이름을 떨친 이야기가 담겨있다. 큰스님들의 수행과 법문 그리고 큰스님들이 서릿발같이 지켜온 일상 속 계율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과 수행이 다르지 않음을 깨우칠 수 있게 된다.

행자 시절 잠이 많아서 고생했던 원행 스님은 새벽잠이 없는 어른들이 존경스럽기만 했다. 종정을 네 번이나 역임하신 한암 스님은 새벽 3시에 예불하고, 선방에서 〈금강경〉을 독송하시고, 사시예불에는 한 시간이나 걸리는 대예참을 직접 다했다.

탄허 스님은 밤 9시면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 밤 12시나 새벽 1시에 첫잠을 깨면 다시 눕지 않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만화 스님은 잠을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밤새도록 앉아서 참선을 했다. 탄허 스님은 “첫잠에서 깨면 다시 눕지 마라. 첫잠을 깰 때가 가장 기운이 맑을 때니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원행 스님은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으며, 1년의 계획은 봄날에 있으며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에 있다”면서 새벽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만화 스님은 예불을 마치고 나서는 영단을 향해 ‘무상게’를 꼭 독경해 줬다. 아침저녁으로 예불이 끝나면 대중들이 참선하고 경전을 읽도록 했다. 대중 한 사람이 나와서 한 대목을 읽으면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독송했다. 그 덕분에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유마경〉 등의 경전공부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원각경〉의 ‘보안보살장’을 은사 만화 스님께서 아침저녁으로 독송했기에 제자인 원행 스님도 아침저녁으로 〈원각경〉을 독송하고 있다.

선남자여,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하므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하므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하므로 환의 멸도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하므로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이를 테면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원행 스님은 〈원각경〉의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변화할 뿐 영원한 것이 없고 그저 시간 속을 흘러가는 바람 같고 구름 같고 꿈같은 것이다. 그러니 실재는 텅 비어 있을 뿐’이라는 무상의 이치를 다시 되짚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금강경〉을 압축한 것이 〈반야심경〉이요, 〈반야심경〉을 압축하면 ‘이무소득고(以無所得故), 얻은 바가 없음’의 한 구절로 귀결된다”고 했다.

13면에 계속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설잠 김시습의 선사상 연구
철우/520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원행 대종사

“下心 필요한 시대, 기도든 명상이든 해보세요”

12면에 이어

기도와 염불도 중요한 불교의 수행법
“기도, 믿음서 시작돼 지극히 임해야”
환경파괴, 탐욕서 비롯…“경각심 갖길”

“온 생명을 다 바쳐 꽃피우는 꽃들처럼
이번 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월정사 선덕이자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대종사가 월정사 황화당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가람수호도 중요한 수행법

원행 스님은 은사 만화 스님을 도와 월정사 대웅전 중창불사에 큰 힘을 보탰다. 폐사 직전의 대전 자광사를 중창했고, 동해 삼화사의 노사나철불을 복원했다. 원주 치악산 구룡사에서 주지 소임을 보는 중에는 전각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다. 참담한 마음도 잠시, 원행 스님은 오롯이 사찰 중창불사에 매진했다. 가람을 중창하고 수호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한암 스님의 ‘승가 오칙’을 소개했다. 한암 스님의 ‘승가 오칙’은 첫째가 참선(參禪), 둘째가 염불(念佛), 셋째가 간경(看經), 넷째는 의식(儀式 종교행사), 다섯째는 수호가람(守護伽藍)이다. ‘사원의 보수와 중창은 청정불국가람을 수호하는 것이며 이것도 수행’이라는 한암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원행 스님은 가람 수호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도량이 건립된다는 것은 다른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정신적인 수행 도량이 들어서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심이 넉넉해져요. 바르고 청정한 도량이 있으면 신도들이 참회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 모여듭니다. 가람은 미래불교의 근원지이자 불성의 발아처입니다.”

원행 스님은 중창불사를 비롯한 큰 불사를 할 때면 4분(分) 정근으로 기도결사를 하였다.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해인사 팔만대장경 장주 소임을 보면서, 대전의 자광사를 중창하면서 만일기도 수행을 하였다. 4분 정근은 하루에 4번씩 두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다.

스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 도량석을 한 후 2시간 동안 새벽기도를 하고, 10시에 사시기도를 한 후 2시간 기도하고, 점심공양을 마치고 2시간 기도를 하고 저녁공양을 마친 후에 2시간 기도를 하는 일과를 이어갔다. 하루 8시간씩 매일 서서 목탁을 치고 염불하고 기도를 올리는 결사는 그 자체로 고행이다. 기도로 여러 차례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기에 원행 스님은 불자들에게 기도 수행을 강조한다.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면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나오는 네 가지 믿음을 소개했다.

“불교의 근본진리를 믿어야 하고, 부처님께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부처님의 법을 믿으면 커다란 이익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불교의 선지식은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수행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참회와 회향이 필요해요. 기도를 한다면 감흥을 느껴야 할 정도로 지극 정성으로 해야 합니다.”

스님은 정화되지 않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도 성취가 어렵기에 참회기도부터 먼저 올려야 함을 강조했다. 기도에 앞서 중요한 것은 행복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라고 하신다. 이 세상은 화(禍)와 복(福)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단다.

“어느 날 자신에게 복이 찾아와 행복하다면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행복을 주위 사람과 나누려고 해야 합니다. 반대로 화가 찾아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화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화가 올 때는 인내해 복을 생각하고, 복이 찾아오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원행 스님은 “한암 스님께서는 새벽 예불을 마치고는 두 시간을 꼬박 서서 꼭 관음정근을 하셨다”면서 염불도 훌륭한 기도이자 수행임을 강조했다.

원행 스님에게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월정사 재무 소임을 맡아 일하고 수행하던 중 1980년 10.27 법난 때 강제 연행돼 극심한 고문을 받았다. 불교 말살을 목표로 일어난 10.27 법난으로 수많은 선지식이 다치거나 돌아가셨다. 그때 받은 고문으로 환절기가 되면 통증이 더욱 더 심해진다. 그 힘든 환란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뿐이다. 그러면서 10.27 불교법난이 종단사에 기록돼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에겐 또 한 번의 큰 환란이 있었다. 1983년 월정사 분규로 원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병으로 나왔다. 이때 탄허 스님은 친필 휘호를 써주셨다.

계간불능유득주(溪澗不能流得住)
경귀대해작파도(竟歸大海作波濤)
계곡의 물은 쉼없이 흐르고 흘러
큰 바다로 돌아가 파도치리라.

탄허 스님은 멀고 먼 구법의 행로를 예견한 듯한 내용이 담긴 휘호를 내렸다. 원행 스님은 지금도 탄허 스님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수행자로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본다. 이런 이유로 원행 스님의 새벽 탑돌이 기도는 계속된다.

작금은 하심이 필요한 시대

원행 스님은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원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외전으로서 ‘생명환경과학’을 전공한 것은 탄허 스님의 영향이 크다.

“탄허 스님은 ‘우주와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화엄경〉뿐이다. 앞으로는 화엄의 시대요 생명의 시대’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환경과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원행 스님에 따르면 현대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보는 새로운 인본주의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사회가 갈망하는 참인간주의 사상은 자기회복, 인간회복이라는 것이다. 한암 스님의 불교사상과 탄허 스님의 화엄사상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사상이 담겨있는 귀한 가르침이라는 게 원행 스님의 주장이다.

“기후 위기를 넘어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산이 녹아내리거나 사라지고 있어 ‘빙하의 장례식’이 행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46억년 전 태어난 지구는 10억년이 지나 비로소 원시 생명이 탄생했어요. 그로부터 지구의 남은 시간이 90초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임계점을 섭씨 1.5도로 잡았어요. 당장은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선을 넘는 순간 지구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겠지요. 생태계를 뒤흔드는 삶의 방식과 물질을 최고로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빚은 결과입니다. 욕망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지구를, 인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21세기 현대사회를 ‘말이 넘쳐나고 분노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로 진단하며 말을 이었다.

“바야흐로 말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 입 가진 이는 세상 도처에 자신의 말을 쏟아냅니다. 각종 소셜미디어는 말의 용광로가 돼버렸어요. 듣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무차별하게 쏟아내는 데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내, 배려, 공감, 하심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더 상처주고, 더 모욕하고, 더 공격하는 일종의 ‘무례(無禮)의 인플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노도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자신을 낮추는 하심(下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수행이 필요하죠. 그것이 선(禪)이든, 염불과 기도든, 간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색할 수 있는 수행을 해보세요. 그럼 스스로 변화하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원행 스님은 예리하게 사회 문제를 짚어냈고, 혜안으로 대안을 내놨다. 이는 모두 선지식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했기에 나온 결과물일 것이다. 인터뷰 말미,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이 2024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청했다.

“저 들녘에 핀 꽃 한 송이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엄의 세계에서 볼 때는 온 힘을 다해 꽃피우는 민들레, 들국화, 장미는 모두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꽃도 이름 없는 꽃도 모두 소중한 꽃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온 힘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존재는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불자 여러분들도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쳐 꽃피우는 꽃들처럼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 10대제자 중 다문제일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해 이를 후세에 전했다. 원행 스님도 한암·탄허·만화 스님 등 오대산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듣고, 실천하고 수행했으며, 그 가르침들을 글과 법문을 통해 전하고 있다. 불교라는 꺼지지 않는 정법의 등불은 이처럼 이어지고 있다.

귀한 법문을 되새기며 황화당을 나섰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도량에 쌓인 눈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선지식의 법문으로 눈보라 치는 세상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문윤정 / 작가

자연(기) 치유 힐링쉼터

자연(기)치유 원리는 우주에 늘 가득하여 전지전능하며 영원불멸하는 우주만물의 창조근원인 우주무한생명기운을 환자의 체내로 불어넣어 환자의 생명기운을 북돋움으로써 체내 손상된 체세포들이 지극히 빠른 속도로 정상적 건강세포로 원상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자연(기)치유는 기치유자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하는 일은 오직 우주 원기운 즉, 우주본성을 환자의 체내에 불어넣기만하고 모든 치유는 우주본성에 의해 저절로 되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일반기공사들의 기공치유와 그 원리측면에서 크게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광희기치유는 선천이 아닌, 후천적으로 생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자연(기)치유 힐링쉼터에서 새로운 삶을 누려보십시오.

치유대상: 관절협착증, 신경통, 녹내장, 산후풍, 불면증, 통풍, 공황장애, 냉한별, 이명, 소화장애, 불안증, 심장질환, 호흡장애, 비염, 각종통증, 난치성 질환 등

NAVER 광희기치료

접수문의 010-8589-2679
충남 논산시 계백로 1012 (터미널 근처 차부약국 옆 2층)

PREMIUM 싸이렌 SAIREN
since 1996 DONGWHA INDUSTRIAL 동화특수산업(주)

유해 조류, 해충 및 동물 기피제

제품상담/시공문의 동화특수산업(주) 조류방제사업부
031-451-6232 / 010-3747-2111

조류 기피제 구조물용
건축물 등에 피해를 주는 조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모기·해충 기피제
천연 고급향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

쥐 기피제
쥐를 해치지 않는 친환경 성분들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파충류 기피제
뱀, 도마뱀 등 파충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멧돼지 기피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유해 조류(새)에 의한 피해 예방


문화재·사찰


사원


관음상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④ 치악산 구룡사



▶한줄 요약
불교에서는 꿩의 보은 전설로 인하여 범종을 치기 전에 가볍게 두 번 치는 전통이 생겼다.

스님 구한 '꿩의 보은' 山 이름도 바꿨다

정상에 홀로 세운 돌탑 셋

산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 치악산을 오르면, 대부분은 '진짜 이름 그대로 치가 떨리고 악이 바친다는 말이 맞구나' 생각하게 된다. 치악산의 주능선은 북쪽 비로봉(1282m)에서 남쪽의 남대봉(1182m)까지 10㎞ 정도며, 설악산, 월악산과 함께 3대 악산으로 꼽힌다. 특히 치악산은 당일 산행만 허용할 만큼 험하다.

어느 해 겨울 치악산 능선을 종주하고 비로봉에서 하산할 때였다. 비로봉 바로 아래 산장 직원은 우리의 늦은 하산길이 걱정되어 그곳에서 묵기를 청하였다. 비로봉 아래에서 하룻밤이라, 조심스럽고 설레는 마음에 하루 묵기로 하였다. 직원은 따뜻한 차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무엇보다 비로봉 정상에 있는 세 돌탑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뒤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자료를 찾아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원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용창중(일명 용진수) 씨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그에게 혼자서 비로봉 정상에 3년 안에 3기의 돌탑을 쌓도록 했다. 이에 용 씨는 비로봉 아래 토굴을 짓고 부지런히 돌탑을 쌓기 시작하였다. 1962년 9월부터 쌓기 시작한 탑은 1964년에 이르러 돌탑 셋으로 완성되었다. 1967년과 1972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졌고 그해마다 용 씨가 복원하였다. 1994년 이후에도 세 차례 무너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복원하였다. 현재 비로봉에는 용왕탑, 산신탑, 칠성탑 등 3기의 미륵불탑이 있다.

어떤 바람으로 돌탑을 쌓았는지, 그 공덕으로 어떤 감응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개인의 삶을 위해서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비로봉을 오른 이들은 미륵돌탑에 예를 올리며 힘겹게 올라온 정성을 저마다의 바람으로 회향할 것이다.



겨울철 흰 눈에 뒤덮인 비로봉 미륵불탑.



상원사 범종각. 자신들을 구해준 스님을 위해 꿩 두 마리가 목숨 바쳐 대신 종을 울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범종 울려 스님을 구하다

치악산의 옛 이름은 적악산(赤嶽山)이다. 단풍이 들면 산 전체가 붉게 변하여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지금의 치악산으로 바뀐 연유는 남대봉 아래 상원사 범종 전설과 관련 있다. 그 전설은 교과서에 실렸을 정도로 유명하다.

스님이 치악산의 울창한 숲길을 걷던 중 숲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살펴보니 구렁이가 꿩 두 마리를 몸으로 감고 있었다. 스님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꿩들이 불쌍해 보였다. 그리곤 재빨리 지팡이로 구렁이를 쫓아 꿩들을 구해주었다. 그날 저녁, 스님은 폐사 직전의 구룡사에 도착하여 깊이 잠들었다. 한밤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눈을 떴다. 구렁이가 스님의 몸을 감고 삼킬 듯이 말하였다.

"네놈이 나의 밥을 먹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라도 대신 잡아먹겠다."

스님은 당황하지 않고 말하였다.

"그대가 사람의 말을 할 줄 하는 것을 보니, 다른 짐승과 달리 전생의 선근이 매우 깊은가 보다."

"그렇다. 나도 전생에 대장부의 몸을 가진 사람이었다. 성낼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놀려 크게 성을 내어 지금의 뱀 몸을 받았다. 배가 너무 고파 꿩이라도 한 마리 잡아먹으려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서 나를 잡아먹어 너의 배를 채워라. 나는 기꺼이 몸을 보시하겠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벌써 잡아먹었다. 나는 이 구렁이 몸이 싫다. 이 몸을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대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준다면 살려주겠다. 날이 새기 전에 종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스님은 막막하였다. 구룡사는 폐사에 가깝고, 종이 있는 절이라고는 산 위로 30리 길에 있는 상원사뿐이었다. 스님은 부처님 뜻에 맡기고 염불하였다. 새벽 세 시가 되자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다. "땡~땡~." 딱 두 번의 종소리였다. 구렁이는 스님을 풀어주고, 마지막 말을 남기며 숨을 거두었다.

구렁이 먹잇감 된 꿩 살린 스님
꿩 대신해 구렁이 먹이로 잡혀
구렁이 몸 벗을 종소리 요구에
꿩 두 마리가 목숨 바쳐 타종

"스님, 고맙습니다. 저는 두 번의 종소리를 듣고 이제 구렁이의 몸을 벗어 하늘에 태어납니다. 스님께서 이 몸을 화장해주시고, 이 이야기를 교훈이 되도록 전해주십시오."

화장을 마친 후 스님은 상원사로 올라갔다. 상원사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범종각 범종 밑에는 머리가 깨져 죽은 두 마리 꿩만 있었다. 스님이 살려준 꿩이었다. 스님은 꿩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산하였다.

그리하여 적악산(赤嶽山)에서 '꿩 치(雉)'자를 사용하여 치악산(雉嶽山)이 되었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꿩의 보은 전설로 인하여 범종을 치기 전에 가볍게 두 번 치는 전통이 생겼다. 불교의식집인 〈석문의범〉에는 '여기에는 치악산 암수 꿩의 보은 전설이 있다(此有雉岳山雌雄雉 報恩傳說)'며 새벽종을 치는 의미를 전한다.

이 이야기는 꿩 대신 까치, 백로 등으로, 스님 대신 선비, 한량, 포수, 나무꾼, 학동 등 여러 변형으로 전해진다. 다양한 변형은 새로운 이야기를 던져주기에 흥미롭다.

절 이름에 거북과 용을 넣다

비로봉(1282m)과 상원사(1100m)는 높은 곳에 자리하여 마음먹고 올라야 한다. 반면에 구룡사는 명상하듯이 계곡을 옆에 끼고 평평한 숲속 길을 걸으면 나타난다. 그 길은 편할 뿐만 아니라 비로봉으로 가는 등산로와 중복되므로 주말에는 많은 사람이 오간다. 세렴폭포까지는 걷기 좋은 길이라 추천하는 바다.

구룡사 절터는 원래 깊은 못으로서 아홉 마리 용이 살고 있었다. 의상 스님(625~702)이 못을 메우고 절을 지으려 하였다. 용들은 이를 막기 위하여 벼락을 치고 우박 같은 비를 내려 산을 물에 잠기게 하였다. 그러자 스님은 비로봉과 천지봉을 밧줄로 연결하여 배를 매어놓고 배 위에서 낮잠을 즐겼다. 용들은 지금쯤 스님이 물에 잠겨 죽었다고 생각하며 비를 멈추었다.

이때 스님은 잠에서 깨어나 한 장의 부적을 그려 못에 넣었다. 이윽고 물은 뜨겁게 끓기 시작하였다. 참지 못한 용들은 물속에서 뛰쳐나와 동해로 달아났다. 그런데 한 마리는 눈이 멀어서 달아나지 못하고 절 위쪽의 구룡폭포 아래 용소에 숨어들었다. 그 뒤 의상 스님은 못을 메우고 절을 창건하였다.

한편 동해로 달아난 여덟 마리 용은 정신없이 도망치느라고 구룡산 앞산을 여덟 개로 쪼개놓았다. 지금도 구룡사에서 동해로 향한 능선은 여덟 골짜기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아홉 구(九)를 써서 구룡사(九龍寺)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절 주변의 지형과 처음 이름이 구룡사(九龍寺)였던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창건 설화가 생겼다고 본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용과 관련된 창건 설화는 경남 양산 통도사, 전남 장흥 보림사 등 여러 사찰에 있다. 그런데 설화나 전설은 그냥 상상의 경우도 있지만, 그때 상황을 나타낸 은유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때 용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무렵, 불교에 텃세를 부린 기존 세력으로 본다. 기존 세력과 대립 속에서 기존 세력은 약해지고 불교는 지역에 자리 잡은 모습이 전설로 전해진다.

구룡사는 도선국사·무학대사·서산대사 등 여러 고승이 수행하면서 영서지방 수찰(首刹)의 지위를 지켜왔다. 그런데 조선 중기 이후 차츰 사세가 기울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였다.

"절 입구의 거북바위 때문에 절의 기가 약해졌으니 그 혈을 끊으시오."

간절한 마음에 거북바위 등에 구멍을 뚫어 혈을 끊었다. 그러나 오히려 절이 더 힘들어졌고 폐사에 직면하였다. 그때 도승이 나타나 말하였다.

"절의 운을 지켜주는 거북바위의 혈맥을 끊어서 절이 쇠락해졌습니다. 거북을 다시 살린다는 뜻에서 아홉 '九'자 대신 거북 '龜'자를 쓰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사찰의 이름을 龜龍寺(구룡사)로 바꾸었다. 절 이름이 九龍寺(구룡사)에서 龜龍寺(구룡사)로 바뀐 사연도 사찰과 관련된 그 시대 상황을 은유한 이야기가 아닐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다.

〈불교학자〉

출강 및 통신 2024학년도 제33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양성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3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 02)733-1959 720-1836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4년 2월 20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72호 | 15 | 전면광고

의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구하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부전스님 1분 사무장님(여) 1분 공양주님(여) 1분 모십니다

부여 미암사

010-5424-555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010-7579-8200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 1년(서울, 경기 의식 기준)
1.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2. 천도의식 : 49제,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주권공, 시식
3. 각종 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개 강 일 : 2024년 03월 06일(수) 오후 2시
1.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2. 수 업 료 : 매월 10만원(교재비 별도)
3. 장 소 : 경북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주시 강동면 모서별봉길 52-33)
4. 접수 연락처 : 054-762-5888 FAX : 054-762-5889
5. 접수기간 : 상시모집(전화접수가능)
6. 자 격 : 종단, 승속 관계없이 가능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장 관성 지공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나를 닦는 백팔배(백팔대참회문)

The Sound of Life
생명의 소리 CD

특가 12,000원

'절이란 참으로 진지하게
나를 닦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극히 내안에 모시고
살림의 장을 확산해 나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1. 절을 하는 마음 낭송 (01:17)
2. 나를 닦는 108배 낭송과 음악 (37:39)
3. 명상음악 "영혼의 피리소리" (05:40)

연주 – 김영동 (대금, 단소, 훈)
삽입곡 – 대금독주곡(즉흥연주)
단소독주곡(즉흥연주)
영가1 – 자연의 소리
영가2 – 자연의 소리
수제천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3+3 소비자가 ~~₩297,000~~ 63%할인 ₩109,890 총 240매
5+5 소비자가 ~~₩495,000~~ 68%할인 ₩158,400 총 40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 강연 영상이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YouTube 심영세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72호 | 16 | 전면광고

바른 도를 잘 닦아 익히어 진실한 법의
그 모양 알고 그 도량에 굳건히 머무르면
부처님의 보리를 성취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60평, 외전각 3채
- 주변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35억
- 경기분당포교원
- 8층 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역세권, ev. 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 임야 : 대 485평
- 가액 : 5억 8천
- 건물 : 삼존불 3자 동불, 법당, 요사채, 공양간, 별채

010-3230-5656
010-8001-073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8억

010-6764-003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 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 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 법회 가능
- 건강상 시가이하로 7억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종교종단 연수원 기도원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원동조교로 453
- 대지 : 임야 2000평 중 대지 400평 대웅전, 산신각, 기도처, 요사채, 숙소 2차선 도로접 버스주차장 200평 포함 향후 재개발 가능 임야 다수
- 스님 고령화로 매매 원함
- 8억 5천 (조정가능)

010-2415-26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약 50평
- 건물 : 3동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 방3개, CCTV 4개
- 가액 : 6천
- 부동산 전화 사절
- 비구니 스님환영

010-7506-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3억 8000만원

010-7289-0059

사 찰 안 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사찰(급)안내

-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 임 야 : 2,000평
-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안면도 암자 명당터
- 주소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840-4번지
- 규모 : 대지 200평, 전 200평, 가옥 3채
- 금액 : 2억 7천만원

*주인이 직접 매매

010-2959-532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 바닷가
- 평수 : 70평 (법당 · 종무소 · 2층요사채 · 창고방 등)
- 가액은 적절히 협의 가능
- 60년된 사찰로 건강상 매도함

010-6309-9944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4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④ 대흥사 禪茶의 내력

禪茶一美 수행 풍토, 한국 차 문화 원동력

긴장과 불안에 노출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켜줌으로써 숨 돌릴 여백을 만들어주는 물질 중에 차만한 것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는 옛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공감했던 차의 오묘한 효험(效驗)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필자 또한 응송 스님(1893~1990)과의 인연으로 '초의차(草衣茶)'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차의 공덕을 깊이 공감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차의 공덕을 노래한 조선 전기 이목(李穆)은 차의 이로움을 오공(五功)과 육덕(六德)으로 분류한 바가 있다. 실로 사람들이 차를 통해 얻었던 공효(功效)는 어느 시대이건 간에 유효하였으니 이는 차 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진 연유이며, 현재·미래에도 이어져야 할 차의 가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차의 이로움이 잘 드러나는 차는 어떤 종류이며,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그 내력을 따라가 보자.

7세기경 신라에 소개된 차는 녹차 종류로 덩이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이전 시대에 좋은 차의 기준은 녹차였는데, 이는 차 관련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특히 차는 감윤(甘潤)한 맛과 청량하고 환한 향기, 싱그럽고 온유(溫柔)한 생기(生氣)를 지녀야 최고의 차로 인식됐다. 이런 차의 맛과 향, 기세는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천연(天然)적인 것, 자연스러움과 상통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므로 제다의 중정(中正)이 실현된 차를 마시면 인간 본연의 평탄한 심신 상태로 회귀(回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실제 조화로운 차 맛과 향, 색, 기세는 제다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이런 특성을 함의한 차는 번뇌를 사라지게 하며 수마(睡魔)를 멀리할 수 있는 효능을 지녔다. 필자가 제다를 통해 차의 오묘한 세계를 조금이라도 감지할 수 있었던 인연은 응송 스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응송 스님을 따라 차 인연의 퍼즐을 따라가다 보면, 범해 스님과 이어지고 초의 선사, 연담 스님, 서산 대사로 연결되는 대흥사의 선다(禪茶)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차를 마시며 수행하는 수행 풍토는 사찰의 오랜 수행 풍습이며 한국 차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 낸 원동력이다. 물론 불교의 성쇠는 차 문화의 흥성과 쇠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도 차 문화의 흐름은 도도히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초의 선사 다맥을 계승한 응송 스님이 사용했던 찻잔.

초의 스님이 조성했다고 전해지는 나한전 동편 산울에 약간의 차나무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차를 만들 때, 찻잎은 주로 인근 마을의 아낙네들이 초파일이 지난 후 근처 산야에 자생하는 야생차를 채취하여 가지고 오면 이를 매입하여 사용했다.

-〈동다정통고〉53~54쪽

위 인용문에 따르면, 그의 출가 당시만 해도 대흥사 경내에는 초의 선사가 조성했던 차밭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초의 선사는 대흥사 경내에 차밭을 조성하여 차를 만들고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조성한 차밭은 나한전 동편 산울이었고 1911년경에도 몇 그루의 차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초의 선사는 자신이 직접 조성한 차밭에서 차나무를 기르고 제다를 연구했기에 차를 따는 시점에 대해 정확한 학설을 피력한 것이며, 이는 그가 실증적인 차 연구를 통해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제다는 좋은 찻잎을 얻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이는 적절한 채다 시점을 결정하는 일이다. 초의 선사가 차나무를 기르고 제다를 하면서 알아차린 대흥사 내의 채다 시점은 입하(立夏) 전후로, 대략 5월 5일경이 적합하다는 그의 정의는 이런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초의 선사가 말한 제다법은 무쇠솥에서 찻잎을 덖는 초청법인데, 그 공정 과정은 선사가 쓴 〈동다송〉에 자세히 서술해 뒀다. 선사의 제다법은 15세기 명나라에서 유행했던 잎차 제다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 풍토와 한국인의 기호에 따라 특징적인 요소를 부각할 방법이 제다 공정 과정에 더해졌을 뿐 전반적인 공정 과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맑고 시원한 맛과 화려하지 않은 순수하고 소박한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취향에 따라 제다할 때 화후의 문제, 유념의 강도, 재건을 위한 공정에 몇 가지 요소가 추가될 뿐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동다정통고〉 1911년 대흥사 차밭 기록
응송스님 "초의 선사 일궜던 차밭" 술회
좋은 찻잎 얻기 위한 선지식 노력 확인

아무튼 필자가 만든 동춘차의 연원은 응송 스님이지만 초의 선사로부터 이어진 셈이다. 올해로 45년 정도 차를 만들다 보니 우둔한 사람도 제다의 원리를 조금 간파하게 됐으니 이는 차를 만든 지 30년이 지난 이후였다. 특히 응송 스님이 초의 선사의 다풍을 이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 인연은 그의 출가 본사가 대흥사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응송 스님의 〈동다정통고〉에서 확인되는데, 1911년경에 출가한 후 다각 소임을 맡았다고 한다. 그의 다각시절은 1911년경부터 1919년까지 이어졌다. 이 무렵 대흥사에는 초의 선사(1786~1866)-범해 스님(1820~1896)-원응 스님(1856~1927)으로 이어지는 다풍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의 선사의 제다법이나 탕법이 그의 제자들에 의해 이어져 실현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1980년경 응송 스님은 어떻게 차를 만들었을까. 이 무렵 필자는 응송 스님의 수행처인 백화사에 머물며 차를 만들었다. 당시 응송 스님은 자신이 소유한 차밭이 없어 강진이나 진도, 담양 등지에서 찻잎을 따다가 차를 만들었는데, 이는 대흥사 경내에 차밭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흥사가 분지이므로 겨울이 몹시 추웠다. 한겨울 날씨는 해남 읍내보다 거의 3~5도가 차이가 날 정도로 추웠다. 그리고 1980~1985년경에도 대흥사 경내에는 차밭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이런 정황은 응송 스님의 〈동다정통고〉에 상세히 서술했다. 따라서 1911년경 대흥사 경내의 차나무 생육 분포 및 사찰의 찻잎 공급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⑧

1. 현재 세계의 불교는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불교의 세계화 양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회에서 고립된 불교가 아니라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불교로 변하고 있다.
② 종파주의적 색채가 줄어들면서, 이를테면 퓨전식(式) 수행풍토가 강조되고 있다.
③ 기복적(祈福的)이나 의례 중심적인 불교에서 참선과 명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④ 출가수행자 중심에서 출가자와 재가불자가 함께하는 불교수행공동체로 변하고 있다.
⑤ 포용성을 지닌 불교가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인격신을 내세우는 종교로 변화하고 있다.

해설 : 세계화, 개방화는 합리적인 이성 위에서 참여와 상호(출가-재가와 같은 양극)의 협력과 실천의 융합(퓨전)에서 이루어짐으로 초자연적이고 절대(종파)적인 인격신을 내세울 경우 세계화, 개방화와는 멀게 된다.

2. 다음은 오늘날 서양에서 불교가 주목받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②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③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인격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④ 평화주의적이고 자연과 합일하는 친환경적인 성격 때문에
⑤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서구 전통과 일치하기 때문에

해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가 깊이 음미해보고 사색하여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 때 믿으라고 하셨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불교의 믿음이 아니다.

3. 다음은 가톨릭과 성공회 수녀, 불교 비구니 스님, 원불교 여자 교무 등 다양한 종교의 여성 수도자들 모임인 '삼소회' 회원들이 인도,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의 종교 성지와 테러 현장을 순례하며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모습이다. 이때 올린 기도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록 종교의 문을 달리하였으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종교화합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나이다.
② 진정으로 이 시대의 모든 종교인들이 세계평화를 꽃피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기를 기원하나이다.
③ 저희들의 이 기도가 인류의 가슴을 적시고 일체 생명을 자비로, 사랑으로, 은혜로 감싸안기를 기원합니다.
④ 이 평화로운 땅에 테러를 저지른 자들이 다시는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아 응분의 대가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⑤ 저희들은 독선과 아집과 편견을 넘어, 한국 여성 수도자의 이름으로 세계 종교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평화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를 기원하나이다.

해설 : 테러의 업보는 우리가 굳이 기원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과이다.

4. 최근 서양인들은 배타적인 인격신 대신 포용성을 지닌 불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양 불교의 최근 현황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유럽의 불교는 주로 동양의 전통적인 불교의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② 서양인이 추구하는 불교는 크게 선불교, 티베트불교, 상좌부계통의 불교이다.
③ 불교의 평화주의적이고 자연과 합일하는 친환경적 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④ 초기에는 주로 학자들의 학문적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수행체험을 중시하고 있다.
⑤ 선불교는 1893년 시카고 세계종교회의 이후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

해설 : 유럽에서는 배타적인 인격신 대신 포용성, 그리고 합리성과 이성에 기초한 불교에 주목하고 있기에, 동양의 전통적인 불교의식보다는 실천적인 수행이나 교학 연찬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답 : ① ② ③ ④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올해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❹ 덕조 스님의 불일암 국수



▶한줄 요약
하얀 면 위에 초록을 양껏 올리고 간장양념 슬쩍 둘러 완성된 불일암 국수에는 '먹이는 간단명료하게'라는 부엌훈을 걸어놓기도 했다던 법정 스님의 수행자로서 삶의 기치가 고스란히 담겼다.

푸성귀에 간장…법정 스님 닮은 충만한 한 그릇

그리고 봄이 온다

'잘 주무셨습니까. 비가 내린 산사의 정취를 느끼며 무소유길로 살포시 걸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아주 오랜만에 받아보는 정성스러운 글 인사였다. 쉬이 쓰고 지워지는 가벼움도, 끝내 무미건조한 회색 벽돌을 주고받는 기분이 되고 마는 그런 대화도 아니다. 정중함 속에 다정한 마음이 스며들어 새처럼 지저귀는 순간. 비 내린 2월의 어느 아침, 승소를 찾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찰나였다.



'무소유길'에 선 덕조 스님.

불일암 국수를 찾아서

삼보종찰 순천 송광사. 서늘할 정도로 맑은 기운이 전해지는 이 천년고찰 곁에는 산속 암자를 향해 오르는 고적한 숲길이 하나 있다. '무소유길'이라 이름 붙여진 그 길의 끝에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어쩌면 가장 사랑받는 성지일지도 모르는 불일암이 있다.

법정 스님의 생전 거처이자, 스님의 자취가 오롯이 남겨진 정갈하고 아름다운 암자. 그리고 스승이 잠드신 그곳에 남아 불일암을 지키는 덕조 스님(불일암 암주)이 머무는 도량이다.

덕조 스님에게 대뜸 스님과 국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청을 드린 것은 곧 법정 스님의 기일이 다가오는 이유였다. 법정 스님께서 생전 국수를 즐겨 드시고, 지금도 기일이면 화려한 제사 상차림 대신 국수 한 그릇을 올린다는 이야기. 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였던가, 도반 스님을 위해 뚝딱 한 그릇 국수를 내오던 덕조 스님의 모습을 목격한 덕분이다.

"국수요? 아, 불일암 국수!"

전화기 사이로 조심스레 국수 이야기를 꺼내자 대번에 '불일암 국수'라고 화답하는 덕조 스님. 불일암 국수라니! 이 유명한 산중 암자의 이름을 붙인 국수가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법정 스님에게서 제자로 이어지는 맛의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 범인(凡人)의 머릿속에선 온갖 궁금증과 함께 이미 끝없는 국수 가닥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암자로 오시지요, 국수는 금방 합니다. 공양하고 가세요."

예상치 못한 허락이 뚝 떨어져 놀란 것은 되레 이야기를 청한 쪽이었다. 약속의 아침, 밤새 내린 비는 거대한 운무가 되어 산사를 결계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불일암에 오르기 직전, 그제야 숲 너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곳은 우리 시대의 스승이 사랑한 숲길, 불일암 가는 길이다.

덕조 스님의 불일암 국수

재료 국수, 간장, 매실청, 꿀, 참기름, 깨소금. 채소(선택)

만드는 법
1. 간장과 물을 1:0.5 비율로 섞어준다.
2. 1에 매실청과 꿀, 참기름을 입맛에 따라 넣고 깨소금과 함께 섞어준다.
3. 삶은 국수를 찬물에 깨끗이 씻어준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다.
4. 상추, 치커리, 오이 등 자연 재료를 먹기 좋게 잘라준다.
5. 국수에 간장양념, 채소를 원하는 만큼 넣고 잘 섞어주면 완성!



덕조 스님이 뚝딱 만들어낸 불일암 국수. 단출한 것이 불일암 국수의 특징이라지만, 푸성귀만큼은 아끼지 않고 넉넉히 더하는 것이 묘미다.

수행자의 식사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셨던가요, 아침 공양은 하셨습니까."

덕조 스님은 부러 송광사를 찾아 하룻밤을 묵었다는 객의 안부를 먼저 살핀다. 덕조(德祖), 법정 스님께서 처음 받은 맏상좌에게 억새풀 같았던 자신과 달리 '덕 있는 할아버지'와 같은 품으로 살아가길 기원하며 내려주었다는 법명이다. 어쩌면 스승은 제자의 이런 살뜰한 면면을 먼저 알아본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글쎄요, 불일암 국수에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냥 평범한 간장 국수지요(웃음). 보통 사람들은 장터국수처럼 국물을 내서 많이 드시지만, 우리는 그냥 간장만. 그래서 준비가 번거롭지 않아요. 먹고 나면 깔끔하고요."

정말 전설의 비기(祕器)와 같은 레시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걸까. 스님의 명료한 답변에 당황한 것은 질문을 청한 쪽이다. 조금 더 거창한 이야기를 기대하는 낯색에 스님은 너털웃음과 함께 부연설명을 잇는다.

"불일암은 본래 자정암이라는 사찰의 폐사지였습니다. 예전부터 공양간 역할을 했던 하사당은 법정 스님께서 그 폐사지의 나무를 주워 방 한 칸을 마련하신 거지요. 방 한 칸, 나무 쌓아놓던 자리, 그리고 아궁이. 스님께서는 아궁이 자리를 부엌 삼아 지내셨습니다. 단출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오관게에 나오듯 말 그대로 수행을 위한 양식으로요."

'평범한 간장국수'라 말하지만
"먹는 것 번잡케 하지 말라"는
법정 스님 수행 원칙 고스란히

먹는다는 것이 가장 손쉬운 유희가 되어버린 시대, 그와 가장 양단에 선 문화가 있다면 아마도 불가의 공양의식이 아닐까. 불일암의 국수 또한 그와 다르지 않음을 이곳의 기원에서부터 전해 듣는다.

'먹는 것을 번잡하지 않게 하라. 반찬은 세 가지 넘지 않게 하고, 간단명료하게 먹는다' 지금도 술술 외워질 만큼 제자에게 강조한 법정 스님의 먹을거리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 가짓수가 많은 식탁을 대하면 생각이 흐트러져 '먹이는 간단명료하게'라는 부엌훈을 걸어놓기도 했다던 법정 스님.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불편함은 그대로 수행자로의 삶을 제련하는 기치로 이어지고, 그것은 여전히 이곳에 살아 흐른다.

불일암 국수의 맛

"은사스님께서는 국수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 또한 번거롭지 않은데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국수만 삶아 간장과 채소만 넣고, 반찬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꺼내어 보는 오래전 스승의 모습도, 그 시절의 풍경도 덕조 스님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하다. 물론 그 시간 속에 법정 스님과 함께 나눈 국수의 맛 또한.

"여름이면 국수를 더 즐겨 드셨어요. 수도 시설이 없던 때, 삶은 국수를 냇가에서 씻어 바로 건져 먹는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웃음)."

간도 되지 않은 그저 평범한 국수, 차가운 냇물에 훌훌 씻어 건져 올린 것만으로 왜 그리 다디달았을까. 그날의 맛이 떠오르는 듯 스님의 얼굴에 슬그머니 미소가 번진다.

어느새 다가온 공양 시간, 덕조 스님의 움직임도 이내 바빠진다.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 삶을 솥단지에 물이 푹푹 끓어오르는 동안 재빨리 간장양념을 준비한다. 단출한 것이 불일암 국수의 특징이라지만, 푸성귀만큼은 아끼지 않고 넉넉히 더하는 것이 묘미. 하얀 면 위에 초록을 양껏 올리고, 간장양념을 슬쩍 둘러주면 완성이다.

마침내 만나는 불일암 국수의 맛! 국수의 찰지고 상쾌한 식감, 잘 스며든 간장의 감칠맛이 놀라울 만큼 향기롭게 입안에 감돈다. 오래전 냇물에서 바로 건져낸 그날의 맛은 아닐지라도, 불일암의 국수는 여전히 맛있고 또 간단명료한 미덕의 상(像)을 지켜가는 중이었다.

봄이 오르는 길

"봄이 되면 텃밭에 늘 먹는 채소 다섯 가지 정도를 심고, 가을에는 김장배추를 심습니다. 한두 사람 먹기엔 많은 양이라 잘 지으면 나눠 먹기도 하지요. 은사스님께서는 밭을 놀리면 게으른 수행자라고 하셨어요. 다른 것 볼 것 없다, 밭만 보면 그 안에 사는 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요(웃음)."

지금도 불일암의 밭은 열두 달 가지런하고, 겨우내 이랑은 잘 삭은 퇴비를 이불처럼 덮은 채 얌전히 잠들어 있다. 봄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 새싹을 틔우고, 불일암을 둘러싼 푸른 숲처럼 이곳을 찾는 이들을 가장 먼저 반길 것이다.

"불일암은 법정 스님을 느끼고 싶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량청소도, 밭을 일구는 것도 결코 쉴 수 없어요. 책에서 만난 단정한 법정 스님을 뵙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으니까요. 그러니 불일암에 오면 말없이 눈을 감고 새소리, 바람 소리, 대나무 줄 넘는 소리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향기도, 흔적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숲길 앞에 선 이방인에게 천천히 걷기를 당부했던 덕조 스님의 뜻은 불일암을 찾는 모두를 향한 바람과 다름없다.

오래전 폐사지에 홀로 선 법정 스님은 그 터를 지키던 매화나무 한 그루의 아름다움에서 머무름의 희망을 보았다고 했다. 지금도 그 나무는 봄이 되면 보석처럼 피어나 온 힘을 다해 불일암을 밝힌다. 이윽고 산 아래로 향하는 시간, 문득 대나무숲 너머 바람길 사이로 훈풍이 지나쳐갔다. 사람도, 바람도 내내 그날의 법정 스님처럼 희망을 찾아 오르는 이곳, 마침내 계절도 잊지 않고 불일암을 오른다. 그렇게 봄이 온다. 〈작가〉







대행 스님

내 앞에 주어지는 대로 진실하게 하는 것이 그냥 부처님 법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남) 저는 스님 법문에서 주인공에게 맡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주인공은 제 몸속에 있는 것인지, 또 우주의 허공 법계에 꽉 찬 것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 주인공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은 염불이나 기도는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주인공에게 맡길 경우가 된다면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 보는 것입니다.

큰스님 뭐, 문은 여기도 많죠. 염불을 해서 가는 문이 있고, 경을 읽어서 가는 문이 있고, 선을 해서 가는 문이 있고 여러 가지의 문이, 이 문 저 문이 많죠. 그러나 문밖에 나가면 그저 다른 문이 아니죠. 주인공이, 이 마음 자체가 내놓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허공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허공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댁이 말을 하는 것도 주인공이 없으면 말을 못 해요. 그걸로써 입증을 할 수 있죠.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믿어라 이겁니다. 그게 자성이죠. 자성이 모두, 이 자성불이 공해서 하나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붙잡을 것도 없으면서 여전히 말을 하게 하고 여전히 움죽거리게 하고, 여전히 이 생각 저 생각 나게 하고, 요것조것 보게 하고 요것조것 듣게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증이 안 됩니까?

질문자3(남)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한다 그랬을 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룩하신 법신불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법신불, 주인공에게는 '주인공,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데, '주인공이시여,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고 하셔서 저는 기도할 때 '거룩하신 법신불이시여!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좀 있거든요.

큰스님 그거는 바깥으로 하는 기복입니다. 그렇게 항상 '해 주십시오' 한다면 노예 생활에 불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자기가 해 놓은 일, 우주 법계에서 알고 있는 이상 아무리 말을 해도 공덕은 하나도 돌아가지 않고 실천은 하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길을 걸어가다가 엎드러지면 그 자리 땅을 짚고 일어나죠. 딴 데를 짚고 일어나는 법 없죠.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거기서 해결을 하겠지 딴 데서 해결을 해 주고 뺏어 가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부터 알아야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말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면 어디로 갈 것도 알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갈 것을 아는 사람이면 지금 현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법신이시여,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해 주시오.' 그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소립니다. 하나도 이익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바깥으로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쫓고 쫓기면서 진화를 시켜 온 그 장본인이 바로 자기니까, 자기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얼마나 경험이 많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안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생사도 거기에 있고, 일체 만법을 응용하는 것도 거기에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사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나는 몸뚱이를 가진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돈도 있다면 나는 관리인이지 내 것이 아니다, 주인 거지. 모든 걸 주인에게 일임시키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해 주시오'가 아니에요. '해 주시오'는 벌써 둘로 보고 비는 게 되죠. 그러나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바로 직접 들어가는 행입니다. 실천이고요.

질문자3(남) 스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스님 이거를 (물컵을 들어 보이시고) 보고서, 만약에 여기 물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물이 있는 걸 봤어. 그런데 집어 먹을 수 없고 집어 줄 수 없다면 그건 보고 듣고 한 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평등도 평등이요, 불평등 또한 평등이라
꽉 찬 평등 속에 평등 찾을 길 없어라
가을 추수 끝난 후 흰 쌀밥 지어 먹으니
봄 나비 훨훨 날아 그 장단에 춤을 추네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큰스님 (오른손 주먹으로 법상을 한 번 치시고 잠시 후) 이걸로써 대답이야.

질문자4(남) 방금 큰스님이 하신 대답을 그전에 맛을 본 거 같습니다.

큰스님 맛을 봤다면 맛을 벌써 못 봤어. 웬 그렇게 말이 많어! 말로 깨트리는 게 되지 않아! 어휴.

질문자5(남) 저는 평생 세속의 학문을 탐구를 해 보고 싶어서 대학원에 간 대학원생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량심과 분별심을 버리고 주인공에 맡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학문과 지식의 세계를 탐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량심과 분별심을 기르는 작업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세계로 들어간다면 한마음 수행법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요.

큰스님 하하하. 세상살이 만사가 다 학생의 마음에 가설이, 직결이 돼 있어. 그러니 어떤 걸 한들 부처님 법이 아니겠는가. 책을 보나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인간의 뿌리도 뿌리가 있어야 몸이 있고 몸이 있어야 행이 있듯이 모든 건 마음의 주인공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 모든 것을 해도 함이 없이 하라 이 소리지. 당신 송장 덩어리가 보는 게 아니거든. 눈을 보게 하고 귀를 뜨이게 하고, 손을 움죽거리게 하고 몸을 움죽거리게, 전체 움죽거리게 하니 보는 거 아냐. 그러니 그건 누가 보는 거야?

그러니 '이거는 망상이고 이거는 망상이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믿어라

☞ 19면에서 계속

아니고' 그런 게 어딨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가 나같이 살라고 하네." 이랬으니 하나도 버릴 게 없네, 아니 할 게 없고. 할 것이 따로 없어. 내 앞에 주어지는 대로 충실히 진실하게 하는 것이 그냥 부처님 법이며 그대로 여여함이야.

질문자5(남) 너무나 고맙습니다.

큰스님 그 책을 누가 보고 생각을 하는 놈이 어딨는지 그것만 알면 돼. 하하하.

질문자6(남) 반갑습니다. 견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큰스님 지금 말하는 건 누가 하는 놈인가?

질문자6(남) '말하는 건 누가 하는가?' 골똘히 생각해 봤었는데 결국은 제 생각으로 알아냈다고 생각한 게 결국은 또 생각이고, 그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보통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할 때 그 깨어 있음이 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의식 위에 또 생각이 있고 그 생각으로….

큰스님 허허허, 그런 걸 그렇게 따지고 들면 죽지 못해. 그런 걸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세상에 들어가서 죽은 일을 전부 알아내나, 응? 하이, 참내! 그렇게 영리해 가지고 어떻게 죽어?

자비라는 게 왜 생긴 줄 아나? 악이든지 선이든지, 잘못된 거든지 잘된 거든지 모든 거를 불문에 부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게 자비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할 때 무조건이지 이익을 바라고 하나? 그게 자비야. 무조건이지.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믿고. 아니, 그렇게 이해타산을 하고 그냥 굴리면 머리로 굴리는 거지 그게 마음으로 샘물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리야.

좀 푹 쉬어야 되겠어. 푹 거기다가 놓는 것이, 모든 일체 아는 것이든지 모르는 것이든지 다 놓는 것이 쉬는 거다. 좀 바보가 돼 봐, 응? 바보가 되란다고 또 일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있지 말고, 일하고 알고 있고 영리하게 머리가 돌아가고 이러는 걸 다 거기에, '네놈만이 알 수 있다.' 하고, '깨달음도 거기서만이 깨닫게 하는 거지 딴 데서 하는 게 아니다.' 하고 그냥 다 놔 버리는 것이야.

질문자6(남) 감사합니다.

질문자7(남) 깨달음을 얻는 데는 스승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시중 서점에 가면 자칭 깨달았다 하면서 책을 많이 펴내고 사람을 모집하던데 그 사람들이 진짜 깨달았는지,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도 될는지요.

큰스님 하하하. (대중 웃음) 참, 이게 웃는 순간에 한마음이 된 거죠. 허허허. 이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사람은 수없이 경험을 하고 진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릇되고 잘못되고 잘되고는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경학이든 또는 그 모든 기복이든 내 마음속에 나로부터 생겼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나로부터. 나부터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없곤 아무것도 없어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따라야 될까 안 따라야 될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지 누구가 따르지 말아라, 따라라 하는 게 없어. 스스로지. 그래서 봐서 이게 옳은 말이냐, 옳은 행을 하느냐, 옳은 뜻이냐 이것을 봐서 따라라 이거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질문자7(남) 그런데 사람들이 쓴 책을 봐도 다 맞는 말 같고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론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 뵙습니다.

큰스님 그러니깐 맞는 말이든지 안 맞는 말이든지 무조건 다, 맞는 말이라도 다 맡겨 놓고 나부터 찾아요. 나부터 믿고 나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어요?

질문자7(남) 스승이 있으면 더 빨리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큰스님 허허. 이거 봐요. 이 컵 하나 나오는 데도 이거 사람을 빼놓고도 네 가지가 한데 합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독불장군이 있답니까? 댁도 지금 살아나가는 게 같이 주고 먹고 주고받고 이러고 사는 거지, 댁이 혼자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혼자 산다면 옷도 입지 말아야 하지 먹지도 말아야 하지, 전부 같이 살면서 하여튼 모든 것을 그렇게 놓고 가요.

질문자7(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무조건, 아는 것도 전부.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고 가장구가 있고 잎새가 있구나. 그러니깐 뿌리에 자꾸 물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뿌리를 믿고 거기에 맡기면 물 주는 거와 같으니깐.

질문자8(남)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교직에 있기 때문에 늘 한마음 법에 의해서 생활하고 또 경험해 가면서 즐겁고 환희에 찬 마음으로 학생들한테 때때로 이 한마음 법을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물론 제가 경험을 해 보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바가, 뭐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어떠한 조그만 싹 트임을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조금씩 학생들에게 연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악이든 선이든, 잘못된 거든 잘된 거든 모든 걸 불문에 부치고
> 무조건 사랑하는 게 자비입니다.
>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무조건이지 이익을 바라고 하나요?
> 그게 자비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열심히 전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도 스스로 아직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스스로를 알 때까지 자제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스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큰스님 부자 다 된 연후에 부모한테 효도하려면 효도 못 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깐 벌어 가면서, 없든 있든 그저 남한테 이익하게 하는 노릇은 그렇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깐 그저 조그마한 거라도, 조그만 것에서부터 커지는 거지 그냥 무조건 커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거기서 하는 거죠, 네.

질문자9(여) 저는 강릉에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별 할 말도 없었는데요, 제가 스님을 지금 뵙고 싶은 심정으로 나왔거든요. 오는 도중에 눈을 감고 있는데 이 가슴에서 불을 켜요. 빨간 불을 켰는데 그 가슴 불을 한참 동안 봤는데 이상해서 눈을 뜨고 있으니까 거울이 또 비쳐요. 거울이 네모가 비쳤다가 그다음에는 둥근 거울이 돼서 산소가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저기 부처님 계시는 저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도중에 느낀 걸 스님께 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보이는 것도 속에서 화해서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입니다. 화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거기 되놓아야 합니다. 그거를 좋다고 바깥으로 이렇게 끄달리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모든 게 있다면 그것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환상이니까,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그 업식이 지은 환상이니까 모든 거를 거기다가 다시 놓고 거기서 무르익혀야 맛이 나지 무르익히지 않는다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거기다가 다시 되놓으십시오. 다시 맡기시고 '감사합니다.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십시오. 다 감사하다고 하고, 그 뜻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게 보였다고 해서 좋아라 하고 그러진 마시고.

질문자10(여) 스님, 저는 이때까지 참 바보로 살았는데 이 바보가 스님 괴롭히러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 너무 기쁨이 있어서 오늘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인사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기 아버지가 또 이 뒷골이 자꾸 쑤시고 당기고 아프다 그래서, 부산 사는데 어젯밤에 오라 했더니 오기는 왔는데 새벽에 못 따라왔어요. 그래 하도 게을러서 새벽에 나오며 "게을러 빠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하겠노?" 그럭하고 고만 왔습니다.

큰스님 그거는 본인의 육체 속에 모든 그 업식이 다 들어 있으니깐요,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돼요.

질문자10(여)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바보스럽게 살았습니다. 저는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고요, 경도 못 읽어 보고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도 부처님 진리를….

큰스님 알고 보면 높은 산만 있다고 그래서 높은 게 아닙니다. 얕은 산이 있기 때문에 높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보면 평등한 겁니다.

질문자11(여) 스님, 저는요. 1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후유증으로 피가 안 통하고 다리가 너무너무 많이 아픕니다.

큰스님 그것도 관하는 걸 똑바로 알아서 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 진실을 여러분이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이러쿵저러쿵하는 거지, 진실하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질문자12(여) 친견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늘 살았는데 작년부터 디스크도 오고 그래서, 스님을 친견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친견하고 나면 제가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큰스님 그렇게 해 보세요. 여직껏 얘기한 대로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 보세요. 자기가 자기 시자를 심부름을 시키려면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틀림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내가 한마디 하죠.

동천에 청새는 서천을 대하고
서천에 쪽새는 청새를 대하니
만공에 피리 소리 온 누리를 뒤덮는데
앞 뒤 중간도 없는 것
한 땅 딛은 한 발도 없어라.

(합장하시고 물을 드신 후, 오른손으로 법상을 한 번 치시고 다시 합장하심.)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2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⑩ 붓다가 보여준 존엄한 죽음 (2)

죽음,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과정

지원(가명) 씨는 14년간 이어 온 남편의 병간호로 지쳐있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해 친구를 사귀고 여행을 즐기던 지원 씨였지만 오랜 병간호로 더 이상 만날 친구도 없었고, 자신만을 찾는 남편의 고함소리에 외출은 쉽지 않았다. 요양병원에 보내라는 자식들의 권유를 들을 때면 화가 치밀고 남편과 함께 죽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상담실을 찾았다. 남편은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고 뇌출혈로 쓰러졌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지만 재발했고 병간호는 오랫동안 이어졌다. "낫는다는 희망마저도 이젠 사라졌다"며 눈물을 흘리던 지원 씨는 "그래도 그를 놓을 수가 없다"고 했다.

죽음을 맞아야 하는 환자 당사자도 너무나 괴롭겠지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들도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건너야 한다. 가족들은 폐허가 될 것 같은 자신의 남은 삶이 두려워 떠날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곤두박질칠 자신의 삶을 붙들 듯이 환자의 마지막 임종을 붙드는 모습이다. 그래서 임종자의 가족들은 지원 씨처럼 남편의 회생을 기대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오직 기적을 기대하며 환자의 연명치료를 이어가기도 한다.

'안락사'는 윤리적 문제로 쉽게 결정하기엔 어려운 주제다. 안락사라는 용어는 17세기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 최초로 사용했다. 이후 1935년에 미국에서 '자발적 안락사의 입법화를 위한 단체'가 결성되고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장애를 가진 신생아에게 안락사를 시행해 윤리적인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안락사는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문제를 이끌 것이란 우려를 비롯해 자살과의 모호한 경계, 안락사 오용 문제에 어렵게 답을 제시하며 발전했고, 현재도 반대파의 다양한 주장들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죽을 권리'와 '생명을 이어갈 권리'라는 팽팽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모두가 두말없이 우선 합의하는 것은 '웰다잉(well dying)'이다. 죽는다는 사실은 반박할 수 없고 잘 죽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실존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안락사의 역사 가운데 자살기계 '타나트론(Thanatron)'을 발명한 잭 케보키언(Jack Kevorkian, 1928~2011)은 죽음의 의사로 불렸다. 그는 1980년대에 죽을 권리를 주장해 화제의 인물이 되었고 실제 말기 환자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가 발명한 타나트론은 3개의 병에 생리식염수, 진통제, 치사량의 염화칼륨이 순서대로 담긴 장치였다. 환자들은 타나트론을 이용해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고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했다. 케보키언은 이어 일산화탄소를 흡입해 죽음에 이르는 '머시트론(Mercitron)'을 개발했다. 해석하면 '자비의 기계'다.

자비의 기계라고 명명한 것은 죽음이라는 인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죽음은 불행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란 메시지를 전달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며 보편적인 진리다. 삶의 필연적 대가다.

사랑하는 이 떠나보낸다는 상실감
슬픔보다 완성으로 관점 돌려봐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 전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준다. 붓다는 춘다의 공양을 그 어떤 공양보다도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그가 올린 버섯요리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셨지만 망설임이 없으셨다.

책 〈고타마 붓다의 생애〉에서 춘다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장면이 나온다. 부처님은 춘다가 준비한 음식 가운데 버섯요리를 드셨고, 다른 제자들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춘다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 버섯요리를 먹은 후 붓다는 심한 병에 걸렸고 날카롭고 극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했다. 이후 붓다는 큰 공덕이 있는 음식에 대해 아난다에게 설하며 괴로워할 춘다에게 전달할 말을 당부한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받은 공양'과 '공양을 받은 후 열반에 들게 되는 음식'이 그 어떤 공양보다 뛰어나며 공덕이 같다고 했다. 깨달음 이후가 깨어있는 삶의 시작이라면 열반은 삶의 완성이다.

열반에 앞서 아난다는 붓다에게 참배해야 할 성지에 대해 질문한다. 붓다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 경배해야 할 장소로 '붓다가 태어난 곳' '깨달음을 이룬 곳' '법을 처음으로 가르친 곳', 마지막으로 '열반에 든 곳'이라고 했다. 이것은 태어남과 성장처럼 죽음도 받아들여야 할 삶의 부분이란 뜻일 것이다.

분명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다. 하지만 붓다는 슬픈 죽음에 대해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과정으로 보여주셨다. 붓다의 열반을 지켜보며 슬퍼 울고 있던 아난다에게 붓다는 말했다.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가깝고 친숙한 모든 것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무엇이든 발생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러니 생긴 것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없다.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다."

죽음을 슬픔의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닌 인생의 종결을 맞이하는 안식이자, 완성의 미학으로 관점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④ 걷기의 새로운 트렌드, 어싱 (下)

맨발걷기, 몸 속 염증 완화효과 탁월

사람은 태곳적부터 땅과 접촉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늘 지구와 전기적으로도 연결돼 있었다. 모든 전기제품은 접지선이 있다. 접지는 전기회로나 전기기기를 땅에 연결하여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를 대지로 흘려보내서 기계와 땅이 같은 전기적 상태인 '0' 볼트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나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로 늘 땅과 접촉해 있으면서 '0'볼트의 전기적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사람들이 고무로 된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 고무는 가장 대표적인 절연체이다. 게다가 땅에는 아스팔트가 깔리면서 환경 전체가 절연체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몸에 잔류 전류가 생기고, 이 전류가 정전기를 일으켜서 건강상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것이 '어싱(Earthing)'의 이론이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건강요법으로 케이블TV 산업의 선구자인 클린턴 오버가 '어싱'의 의료적 효과를 발견하게 된 과정을 찾아낸 책 〈어싱〉에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의학적인 근거는 미약하지만, 실증적인 사례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클린턴 오버가 주장하는 어싱의 효과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염증의 원인을 완화하고 수많은 염증 관련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없애고,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가 줄고 차분해지고, 생체리듬이 정상화되면, 주변 전자기장의 잠재적 위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 등이 있다.

맨발로 산을 걸으면서 암이나 통증과 같은 고질병이 나았다는 경험담도 풍부하다. 그래서 그런지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꽤 알려지고, 맨발로 산과 들을 걸으면서 어싱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맨발걷기'라고 카페나 네이버 밴드를 검색해보면 수백 개가 나올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곳도 많다.

어싱을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맨발로 땅을 접촉하면서 걸으면 된다. 쉽고 간단한 것에 비해 효과는 좋다고 여겨진다. '접지는 혈액의 점성을 낮춰준다'라는 논문에 따르면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는 혈액이 맨발걷기 40분 뒤 깨끗해졌다. 또한 적혈구 제타전위(Zeta Potential, 표면 세포 간 밀어내는 힘)를 평균 2.7배 높여줘 혈류 속도가 2.7배로 빨라졌다.



사진출처=Unsplash

현재 한국서 맨발걷기로 불리는 '어싱'
염증 완화, 고질병 치료 경험담 많아
'어싱',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 급부상

'어싱'이 새로운 건강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우선은 환경의 문제를 누구나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파, 전기파,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현대인은 늘 인공적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어싱 테스트를 하다 보면 도심에서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발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지역이나 전선이 지나는 지역에서는 전류테스터기의 반응이 느리거나, 아예 전하 상태가 '0'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스팔트에서는 전혀 접지가 되지 않고, 콘크리트로 된 보도블록도 재료와 지역적 상태에 따라 어싱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인간의 몸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이다. 어싱 신발을 찾는 사람들은 당연히도 대부분 건강을 심히 염려하는 중장년층이다. 과거 같으면 건강을 묻기 전에 수명을 다했을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하게 남았다는 사실을 걱정한다. 잔병치레가 잦아지면서 중장년층은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는 데 열심이다.

이러한 중장년층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어싱'이야말로 상당히 좋은 건강요법이다. 특히 맨발로 산이나 바다의 흙과 모래를 밟으며 걷는 자체가 온몸의 신경을 좋은 방향으로 자극하는 데다, 최근 어싱 효과가 새로운 대체의학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니, 중장년층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현대의학의 한계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의학이 발전했지만,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의학으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병들이 많고, 심지어는 원인과 치료법을 모르는 병도 많다. 그 와중에 나름 효과를 보고 있는 대체의학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람들은 그 대체의학에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어싱이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기를 이용한 치료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생체전기치료, 생체 전자기기, 전기생물학, 전기 생리학 치료 등이 있고, 인체 내의 전기 작용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이 난무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면서 자연과 함께 하기를 갈망한다. 원래 인간의 생체는 끊임없이 흐르는 아날로그에 가깝고, 흘렀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는 디지털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디지털이 깊어갈수록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깊어진다.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걷고, 자연과 한 사코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어싱'이라는 열광적 건강 트렌드를 만들어 냈지 않나 싶다.

〈비바미(Viva!me) 대표〉

어싱 매트·베개·온열방석 특판 할인

※ 어싱(Earthing)이란, 한마디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맨발로 걷거나 앉아있고 누워있음으로 인해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대지의 어머니와 만나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음이온, 음전하, 음전자가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구는 거대한 음전하를 띠고 있다. 어싱을 하면 음전하가 몸에 유입되어 유해한 활성산소를 억제한다. 염증반응을 줄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몸이 자연스레 밸런스를 찾게 된다.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판매 기념
전 구매고객 구절초 샴푸 증정
기간 : 2024년 1월 25일~2월 13일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할인가
찜질(디톡스) + 어싱(맨발걷기) + 온열(체온면역)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팥)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팥) S
판매가 1,980,000
⇒ 할인가 1,800,000
15만원 상당 전신찜질팩 증정

매일 30분, 찜질로 면역력깨움!
그래핀 온열 어싱매트
#깊은잠 #면역력 #건강회복
#붓기 #몸이개운해짐 #정신건강
15만원 상당 전신찜질팩 증정
찜질 디톡스 + 어싱 맨발걷기 + 온열 체온.면역
일반 전기 열선 매트 vs 특꽃잠 탄소원적외선발열체
※열선이 없습니다!
그래핀 원적외선 어싱매트는 70℃에서도 열음이 녹지 않습니다

하루 15분
하루 15분, 앉아만 계세요!
그래핀 좌훈 케겔운동기
#케겔 #좌훈 #남녀공용 #근적외선
#하체코어근육 #항문질환 #음파운동기
그래핀어싱 맨발걷기 / 근적외선 LED라라찌 / 블루투스 스피커 / 원적외선 좌훈.좌욕
9만원 상당 어깨찜질팩 증정
사운드테라피 : 고래소리의 비밀
소리와 파동(음파)으로 사람의 신체를 공명시키는 비침습적 음악치료
-물속은 공기보다 5배 빠른 전파력
(돌고래-음파+초음파로 대화)
-우리몸의 수분(혈액)을 매질로 이용, 치유하는 음파

숨 그래핀 어싱 베개(아치형)
특허청 / KAA 대한아토피협회 / FITI테스트 항균99.9% / FITI테스트 6대중금속 검출안됨 /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 테스트 완료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전법 일기

적당한 자식 사랑 마음 건강 지킴이

얼마 전 설이었다. 합동차례를 지내는 가족이 많아져 아이부터 어른까지 절은 여느 때보다 북적였다. 1년에 두 차례, 여러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날을 맞아 입춘 때 준비해둔 입춘부와 소원성취부를 나눠주며 안부를 물을 때였다.

"스님! 잠시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 한 보살님이 다가와 물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안색은 어둡고 무언가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이미 정해진 일정들이 있어 갑자기 짬을 내기 부담스러웠지만 상담을 뒤로 미루기엔 보살님의 낯빛이 너무 어두웠다. 나는 예정된 자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20분 뒤 보살님과 마주앉았다.

"스님, 너무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드세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보살님은 따님에 대한 걱정에 매여 있었다. 자식을 향한 애정이 남다르다보니 자식이 잘될 땐 보람을 느끼다가도, 자식이 힘들어할 땐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마음에 삶이 후회되고 자책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다보니 우울증에 시달리고 괴로움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벗어날 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속내를 전해듣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동안 시간을 두고 보살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보니 조금은 길이 보였다.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보살님의 마음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 자식을 돕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삶의 목표이자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식 역시 스스로가 힘들 때 엄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자식을 대하는 대로, 자식 역시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화된 것이다.

그래서 보살님에게 자식을 도와야 한다거나 자식 잘되는 게 내 삶의 전부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간다는 걸 알아차리고 멈추도록 하는 수행법을 일러줬다. 또 매일 집에서 우울 속에 있지 않고 부처님 만나러 출근하듯이 절에 당분간 계속 나오기로 하고 상담을 마쳤다. 60대 중반의 보살님은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집에 돌아갔다.

붓다께서 "누구에게 의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으로 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고 유훈하신 것이 생각난다. 붓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행하셨듯이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홀로 설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찰 역할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심리치료 책을 읽고 있다. 붓다께서 강조하신 길이 현실에서, 현장에서 결실로 맺히기를 늘 기원 드린다.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② 생명복제, 기술 아닌 욕망

달그림자 아름다워도 결국 가짜일 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된 가치를 구현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진짜와 모조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방된 가상의 물건들이 진본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었다.

만고에 푸른 연못에 비친 달, 두세 번 건져봐야 거짓인 줄 알게 되리.(萬古碧潭空界月 再三撈摝始應知)

–대혜 종고(1089~1163)

연못 위에 비친 달그림자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진짜 달이 아니라는 대혜 종고 선사의 게송은 모조품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많은 것이 복사되고 복제되는 우리 시대에 곰곰이 새겨볼 내용이다.

우리 시대의 과학기술은 현기증을 일으킬 만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은 어떠한 지침을 묻기보다 어떤 효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왜냐하면 실용적 가치를 전제로 움직이는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도덕적 진공 상태'인 현실에서 '철학의 변형'(Transformation der Philosophie)을 통해서 의미의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Karl Otto Apel). 그리고 의사소통공동체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합의를 부단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담론의 중요성을 통하여 고루한 학계와 현실에 민주주의 원칙이 비로소 도입된다. 윤리와 철학이 외면받고 과학과 기술의 편리성이 유행이라 해도 종교와 인문학은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근본을 묻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일말의 책임감을 지녀야 하는 것이 윤리와 종교이다.

'연못에 비친 달'에 비견할 수 있는 복제품들에 대한 담론의 주요 주제는 행위 주체의 문제이다. 누가 생명복제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가? 국가와 과학, 종교와 윤리 이 둘을 저울질해보면 어찌 되는가?

진보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시대
현재 상황은 '도덕적 진공 상태'
철학·종교윤리 적용 초미 관심사
불교, 생명 가치를 불가침에 둬야

국가와 과학은 배아복제 및 동물복제를 여러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이대며 옹호하고 있다. 질병의 연구와 치료, 생명의 연장, 영양물질의 생산, 멸종위기동물의 보전, 우수형질의 확대 등이다. 이 논거들은 대부분 현실적 효용성과 경제적 이득에 기반한다.

종교와 윤리의 입장은 인권의 확대 버전인 동물권에 기반한 윤리성, 생명의 존엄성과 정체성의 혼란, 생태계의 혼란과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변질 가능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교적 입장은 과학기술 자체의 문제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단언컨대 복제기술에 내재된 생명연장과 관련된 욕망은 대부분의 불교가 추구하는 생명윤리와 공존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욕망은 인과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업력을 가속화하고 무겁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생명복제 및 배아실험에 대한 생명윤리의 논점들은 생명의 절대성에 기초하고 있다. 절대적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는 생명체는 과학기술에 의하여 조작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생명윤리적 비판은 고귀한 생명을 물화시킴으로 목적 자체를 수단화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한다.

뜨거운 벽돌로 내려치자, 밑바닥까지 얼어붙었다.(燋甎打着 連底凍)

–자수 회심(1077~1132)

불교 생명윤리학은 생명 고유의 가치를 불가침의 권리로 옹호해야 한다. 배아복제와 동물복제 논의는 종래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벽돌을 밑바닥까지 내려치며 검토하고 다뤄야 할 문제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남인도 불교 매력 속으로

얼마 전 설 연휴를 이용해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 이야기'를 관람했다. 10년이 넘는 기자생활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에는 도통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해 상월결사 인도순례 43일 여정을 동행 취재하며 생긴 인도의 향수 덕분인지 전시회가 왠지 모르게 끌렸다.

'스투파의 숲' 전시회는 2000여 년 전 남인도 불교미술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룸비니에서 태어나 생애를 북인도에서만 보낸 부처님이기에 남인도의 불교미술은 기존 힌두문화에 더해진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시회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풍요를 가져오는 자연의 정령 '약샤(남성형)와 약시(여성형)'다. 풍요를 상징하는 만큼 육감적인 체형에 다양한 장신구가 인상적인데, 그저 하나의 정령이었던 약샤는 불교를 만나 연꽃을 들고 부처님을 보필하는 존재로 거듭났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 마카라 조각상과 아쇼카왕이 스투파를 증축하며 부처님 사리에 더한 보석들, 부처님 일대기를 새긴 스투파 조각 등이 전시회를 장엄한다. 부처님을 직접 표현할 수 없었던 무불상(無佛像) 시대, 보리수 아래 빈자리를 향한 경배도 눈길을 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북인도의 간다라미술과 달리 작품 전반에서 서구적인 양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매력이다.

박물관을 찾은 날은 설 다음날이었지만 '스투파의 숲' 전시회는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일반적인 주말은 아니기에 비교적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 자리에 불자가 얼마나 있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전시회 주제가 불교와 남인도인 만큼 불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박물관 입장에선 '스투파의 숲' 전시회가 흥행해야 또 다른 불교 관련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불자라면 남인도 부처님 친견하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자.



윤호섭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나날이 굳는 간 고통보다 더 큰
사진으로 만난 7살 딸 향한 그리움"

네팔 이주민 키란씨, 간 수치 일반인 40배 · 경화
수술받았으나…병원 빚 1400만원에 앞날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출가, 인생 리셋이자 리스타트

현불논단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새해가 되었어도 연일 뉴스에 청년실업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시대가 되었어도 정작 그 시대를 풍미하며 지내야 할 젊은 세대에게는 다른 나라의 소식인 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에는 여행지의 소식이나 명품을 자랑하는 등 화려한 모습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이 시대의 아이러니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터넷의 화려함과 현실의 불안감이 겹쳐지며 청년들은 더욱 혼란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동국대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해 만날 일이 많다. 기성세대가 소위 'MZ세대'라고 구별지어 부르는 그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편견은 사그라든다. 오히려 기회조차 쉽게 얻지 못해 경험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고, 어른들의 시선으로 판단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에 지쳐 도리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사회가 표현하는 MZ식 모습을 보이게도 된다. 이러한 청년들의 악순환은 결코 그들만의 문제나 잘못이 아니다. 기회조차 없으니 변화의 모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종종 학생들이 출가자의 삶에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한다. '근데 왜 출가하셨어요? 힘들지 않나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죠?' 등등. 이러한 질문을 필자는 다르게 받아들인다. 지금 그들의 삶에

기회 박탈된 청년들, 변화는 남의 일
스스로 변화 절실하다면 출가 해보길
주인공이 되는 출가는 변화로의 여정

도피처와 변화의 의지처조차 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묻는 건 아닐까? 그때 꼭 해주는 대답이 '출가는 인생의 리셋이며 리스타트'라는 표현이다. 그럼 더욱 궁금함을 갖고 이야기를 경청한다. 대부분의 삶은 주변의 여러 환경과 조건에 의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학교가 정해지고, 직장이 정해지고, 직업을 갖고, 일상적 삶을 살아간다. 안타깝게도 그 속에 자신의 의지는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출가는 다르다. 순수한 자신의 의지로 출가의 첫 걸음을 떼면 그 순간부터 모든 삶이 '리셋'된다. 살면서 지난 흔적(업)을 잊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없을지도 모른다. 물론 잘못된 삶을 지운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만들어진 삶을 리셋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과 노력으로 다시금 만들어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리스타트'가 이뤄진다. 지난 흔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자신이 갈망하던 그것에 도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출가는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자신 이외의 다른 이들만이 잘 살아가는 듯한 세상에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 자신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출가에 의해 현실이 된다. 현실을 떠나 출가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現實)',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출가이다. 즉, 출가하여 현실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업)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출가의 삶이다. 그렇기에 출가는 자신이 스스로 삶을 리셋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의 리스타트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박물관, 장애인의 손을 잡다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남인도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 이야기'가 전시 중이다. 장애인 10여 명과 관람 계획이 있어 전시의 장애인 편의 제공에 대한 문의전화를 했다. 대표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 대략적인 설명을 해준 후, 전시담당자에게 연결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내용을 친절히 안내해줬다. 그 친절함은 요새 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박물관의 변화 노력에 첫 문을 들어선 것 같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불교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장애인들에게 박물관 관람을 권유하고 있는데 그들도 직접 변화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박물관의 다양한 불교문화유산을 시각장애인도 향유할 수 있도록 다감각 체험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사유의 방'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다양한 감각 기관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공간 '오감'이 그 하나이다. 반가사유상 미니어처와 복제품 등을 전시해 손으로 만져보거나 재료의 냄새를 맡아 체험하며 소통하는 공간이다.

날로 다양해지는 장애인들의 문화향유의 욕구에 부응하는 변화가 반가워 올해 국립중앙박물

장애인 10명과 남인도불교 특별전 관람
國博, 장애인 전시 서비스 친절히 안내
문화취약계층 위한 서비스 강화 '환영'

관의 장애인을 위한 사업계획 자료를 찾아봤다.

금속공예전시실에 전시 중인 범종을 비롯해 범음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도 열리는 등 다감각 전시를 확대한다고 한다. 오는 9월부터 문을 열 금속공예 다감각 전시에는 국보 천흥사 동종을 비롯해 여러 범종과 쇠북 등 범음구의 재질과 구조를 소리, 촉감 등 다양한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 벌써 기대된다.

이 밖에도 박물관 로비인 으뜸홀도 장애인 지원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모든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형 복합공간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휴게공간, 수어 음성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좋은 시설을 갖춤과 동시에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인식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친절한 안내에 장애유형에 맞는 정확한 응대가 필요하다. 입구 안내 데스크에서 장애인이 전시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지 등 정확한 안내가 있어야 하고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쉬운 언어의 안내가 필요하듯 각 장애유형에 맞는 안내가 필수적이다.

상설전시가 아닌 기획전시의 경우도 편의제공이 필요하다. 전시물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오디오가이드로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한다든가, 문맹률이 높은 청각장애인에게 작품마다 설명이 잘 돼 있으니 그냥 관람하면 된다고 안내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점자안내 리플렛 배치, 전시기간 중에 주 1회 혹은 2주에 1회라도 장애인을 위한 해설사의 정규해설의 시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社 說

상월결사 인도순례 입재 1주년에 부쳐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오전 6시 상월결사 인도순례 참여 대중 30여 명은 순례 입재 1주년을 기념하는 걷기명상 정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1년 전 그날처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부처님께 정진을 다짐하는 고불문을 올리고 정진했다.

1년 전 비구 56명, 비구니 12명, 우바새 6명, 우바이 6명 등 총 108명의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를 슬로건으로 부처님 8대 성지와 1167km를 43일 동안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2019년 진행된 '상월선원 천막결사' 이후 이어진 2020년 '국난극복 자비순례',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 2022년 '평화방생순례'의 종결어미이자 3년 동안 진행된 순례의 '화룡점정'이기도 했다.

43일의 순례 뒤 故해봉당 자승 대종사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과 '대학생 전법'을 실천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대학생 전법을 위한 기금 등 인프라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자승 대종사는 소신공양으로 열반에 들었지만, 그 유지와 원력은 남았다.

"1년 전에는 목조불상을 안고 정진했다면 이제는 마음 속 부처님과 열반하신 자승 대종사의 유지를 안고 정진해야 한다"는 총도감 호산 스님의 말처럼 3월 23일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되짚고 점검하자. 전법은 곧 한국불교의 미래다. 이를 다시 상기하자.

디테일한 군불자 관리 이뤄지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체계적 군불자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수계 장병 DB구축을 통해 군포교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청년 전법 활성화를 위해 군종병 관리도 적극 수행한다는 것이다.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조계종 포교원-군종교구-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TF팀을 구성하고 수계 장병 DB 구축에 나선 것이다.

기실, 신병교육대에서 수계를 받고 예하부대에서 신행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막상 전역하고 난 뒤에는 이 같은 신행이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 군포교의 문제점이었다. 소위 전법포교의 애프터서비스가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수계 장병DB가 구축되면 전역 후 수계 장병이 대학교 불교동아리나 지역 사찰로 신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수계 장병 DB는 군 복무 후 대학과 사회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군대에서 맺은 불연(佛緣)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활동을 보조하는 병사인 군종병을 집중 케어하겠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신심이 일반병보다 높은 군종병들이 출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군종병 120명에 대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향후에는 자신의 주특기 보직 이외에도 군종업무를 담당하는 비인가 군종병들에 대한 케어도 이뤄지길 바란다. 디테일한 군불자 관리가 결국 군불교 진흥을 이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바닷속 거북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돌장승 노래 부르는 소리
온 천하에 울려 퍼지리!

신간

대행선사 게송 · 선시 모음집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

본 책자에는 선사께서 법회 때 읊으셨던 게송, 선법가 가사로 만들어진 선시,
편지글 속의 게송과 함께 친필 원고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가격: 20.000원 336쪽 엮은이_(재)한마음선원 출판부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적이야!

개정판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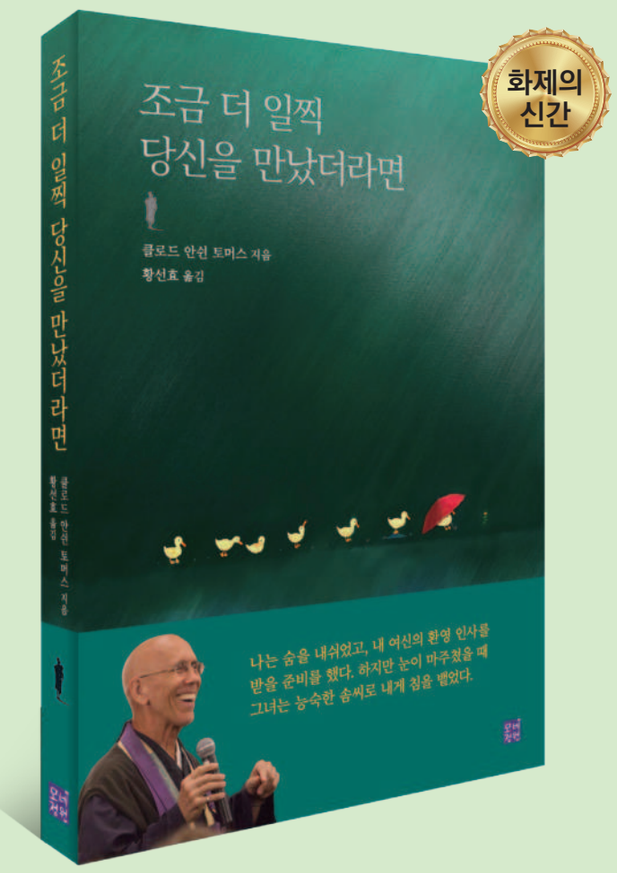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화제의 신간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